

윤석열 대통령 부부, 용산어린이정원 '추석맞이 팔도장터' 깜짝 방문

윤석열 대통령 부부 "모두에게 따뜻하고 넉넉한 명절이 되기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9월 24일 오전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추석을 맞아 운영 중인 팔도장터를 깜짝 방문했다. 팔도장터에서 성수품을 구입하던 어른들과 잔디마당에서 뛰놀던 아이들은 대통령 부부가 나타나자 반갑게 맞았다. 대통령 부부는 부모와 함께 장터를 방문한 아이들과 일일이 사진을 찍으며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명절되세요"라고 화답했다.

대통령 부부는 먼저 떡매치기, 투호 등 전통놀이 체험부스를 찾아 아이들과 함께 전통놀이를 즐기며 용산어린이정원에는 자주 오시길, 이번 명절은 어떻게 보내는지 등을 물어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 부부는 이어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협업해 창업 성공사례를 이어가

는 상생부스를 방문해 청년 상인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여주 출신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가 개발한 여주 쌀 마카롱의 제조 방법 등을 들었으며, 이어 스타벅스가 소상공인과 협업해 개발한 옥천 단호박라떼, 공주 밤 라떼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단호박라떼를 직접 시음하기도 했다.

이후 대통령 부부는 지역우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장터로 이동해, 강원 황태포, 충주 복숭아, 상주 꽃감, 완도 전복, 제주 은갈치 등 전국의 추석 성수품을 골고루 구입했다.

대통령은 전남수협부스에서 "완도가 김과 전복을 본격적으로 생산하면서 부자가 많이 나왔다"고 하면서 현장 상인들을 격려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

은 "대통령님께서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 주신 이후 판매가 많이 증가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이어 이재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외에 사과 같은 과일이나 육류 등도 잘 나간다"며 명절 성수품 판매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이날 정원을 방문한 아이들은 잔디마당에 마련된 대통령 집무실 모형의 포토존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대통령 부부는 직접 포토존을 방문해 아이들과 다함께 기념 촬영을 하며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다.

이후 먹거리 장터로 이동해 개포동에 사는 초등학생 쌍둥이, 어머니 세 사람과 함께 광장시장 빈대떡, 송편, 식혜 등 간

단한 명절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다. 식사 중에 주변 어린이들이 다가와 대통령 부부에게 인사하며 반려견 새콤이와 씨니를 만져보기도 했다.

대통령은 장터를 떠나면서 "이번 추석은 국민 모두에게 따뜻하고 넉넉한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며 명절 인사를 전했으며, 장터 방문객들은 떠나는 대통령 부부에게 "대통령님 응원합니다. 파이팅!" 하면서 응원을 보냈다.

용산어린이정원 추석맞이 팔도장터는 국민들이 용산어린이정원을 마음껏 즐기고 명절 성수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9.22(금)~9.24(일) 3일간 운영했으며, 행사기간 동안 8,500여 명이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최광수/기자



오세훈 서울특별시시장, 서울런과 안심소득 성과 공유...양극화 해소 위한 약자동행지수 소개

오 시장,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 기조연설... '약자와의 동행' 비전·성과 발표



오세훈 시장이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전 세계도시들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인 양극화 심화 현상을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필요성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서울시의 핵심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성과를 소개했다.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에는 30개국 50개 도시 시장 및 대표단과 22개 국제기구 및 기업 관계자가 참여해 '살기 좋고 지속가능한 도시: 포용적이고 회복력있는 미래를 선도하다'를 주제로 각 도시별 사례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은 전 세계 도시 시장, 국제기구 관계자, 비즈니스 리더 등이 모여 살기 좋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올해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은 9.24.(일)~26(화) 3일간 서울 DDP에서 개최된다.

오세훈 시장은 25일(월) 14시, 시장포럼 개회식의 기조연설자로 나서, 올해 포럼 주제인 지속가능한 포용도시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비전과 주요 정책인 '서울런'과 '안심소득'의 성과를 발표했다.

오 시장은 " '약자와의 동행'을 핵심 가치로 생각하는 서울에서 지속가능한 포용도시를 위한 논의를 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약자와의 동행 대표 정책인 취약계층 대상 교육 지원 프로그램인 '서울런'과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안심소득'의 정책 성과를 공유했다.

"서울런을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서울런에 들인 예산이 가치있게 사용됐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히고,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취약계층의 근로의욕 유지 효과를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는 '안심소득'의 효과도 소개했다.

서울런은 올 한해 총 461명의 참여자들이 서울런을 통해 대학에 진학하는 성과를 달성했으며, 1년간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 결과 근로의욕 자극, 신청자의 한계 극복, 취약계층의 수급 탈피율 제고 등 기존 복지제도와 차별화된 다양한 성과가 드러났다.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정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약자동행지수'도 개발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약자동행지수'는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 단위 시정성과를 평가하는 최초의 시도로, 내달 초 개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가 새롭게 선보이는

브랜드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은 서울시민의 마음이 모였을 때 더 좋은 도시 서울이 될 수 있다는 뜻인데, 양극화 등 우리가 겪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길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며 올해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을 통해 전 세계의 마음을 모아 지속가능한 포용도시를 만들어 갈 것을 촉구했다.

한편 25일(월) 오전에는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 참석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도시건축비엔날레'와 '서울공예박물관'을 돌아보는 정책 현장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도시 리더들에게 도시의 정체성을 함께 고민하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시간을 가졌다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현장에서는 조병수 도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의 안내에 따라 열린송현동조각장에서 하늘소·망소와 같은 주요 조형물을 관람하며 서울의 미래를 바라보며 추구해야 할 공동의 가치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서 서울공예박물관에서는 김수정 서울공예박물관장이 박물관 부지의 역사적 의미와 계승을 설명하며, 지속가능한 도시의 의미를 고찰하는 장을 만들었다.

서울시는 26일까지 이어지는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에서 △2차례의 정책 현장 방문, △서울-싱가포르 정책 전시, △CES혁신상 수상 등 27개 혁신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체험해볼 수 있는 전시관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도시에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알릴 계획이다.

최광수/기자

전남도, 따뜻한 추석 명절 분위기 앞장

전라남도가 추석을 맞아 김영록 도지사 및 간부공무원, 도의원들과 함께 오는 25일까지 사회복지시설 507개소 1만 3천 350명의 소외된 이웃을 찾아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위문활동에선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1억 5천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과 지역 특산품 등 필요한 물품을 선정해 전달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25일 지리산삼성요양원을 방문해 사랑나눔 위문품 전달과 함께 시설 종사자 노고를 치하하고 생활인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리산삼성요양원은 2014년 개소해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어르신에게 돌봄서비스를 해 편안한 노후를 보내도록 지원 중이다. 김영록 지사는 "올 한해 경기침체와

자연재난 피해 등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위를 둘러보면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긴~황금연휴 "추석", 경북으로 나들이 오세요!!

경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10월 2일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장기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동안 경북을 찾는 귀성객들과 관광객들을 위해 다양한 할인 혜택과 다채로운 볼거리, 즐길 거리를 준비한다고 밝혔다.

먼저, 추석 연휴 기간에도 '경북 e누리 특별 할인행사'는 지속된다. 이번 할인행사는 경북을 찾은 관광객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편리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주요 관광지 체험시설, 숙박시설을 연계한 패키지 관광상품을 경북여행몰·쿠팡·G마켓 등 9개 온라인 판매채널을 통해 50%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이를 통해 추석 연휴 기간 경북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가성비로 사방팔방 매력을 지닌 경북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추석을 맞아 가족과 함께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전통 민속놀이 체험,

공연 등 다양한 행사도 개최된다.

추석맞이 특별행사인 '2023 한가위 보문 어울림 한마당'이 9월 29일에서 10월 1일까지 3일간 보문관광단지 내에 있는 호반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 제기차기, 투호, 윷놀이 등 전통 놀이뿐만 아니라 한복 입기, 타투체험, 풍선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고, 통기타, 트로트, 국악 등 다양한 공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안동호반자연휴양림과 팔공산 금화자연휴양림에서는 9월 23일부터 10월 3일까지 11일간 제기차기, 투호 놀이 등 다양한 전통 민속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객실 내에는 윷놀이, 보드게임 등을 제공해 휴양림을 찾는 관광객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북관광 대표 홈페이지인 '경북나드리'를 통해 추석 연휴 경북에 가

볼 만한 곳, 축제, 행사 등을 안내하고, 럭키세븐 경북 여행 100선 이벤트, 추석 체크 이벤트, 인스타그램 팔로우·초성 퀴즈 이벤트 등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경북관광홍보관(경주), 경북종합관광안내소(안동)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 경북을 찾는 관광객에게 경북 여행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인 대상으로는 통역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윤근수/기자



온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한 숲 속 축제

2023

아이·가족·자연

트리피스트리피스티벌

2023.10.6(금)~7(토)
경상북도청 천년숲

참여행사	공연행사	안전체험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OX퀴즈 · 최강 어린이 소방관 챌린지 · 웹툰그리기, 보물찾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명구조원 훈련시범 · 소방드론 시연, 소방차 방수 시연 · 마술쇼, 버블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개 테마 60여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경북도의회, 3대 문화권 사업장 연계로 관광활성화 찾아야

경북북부권관광활성화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북도의회 '경북 북부권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회'(대표 김대일 의원)는 21일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북 북부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3대 문화권 사업장 연계 활용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안동대학교 태지호 교수는 2023년 관광트렌드를 중심으로 안동, 영주, 영양, 예천, 봉화 등 경북 북부권에 소재한 3대 문화권 사업장의 콘텐츠 전략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장 연계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연구회의 대표인 김대일 의원은 3대 문화권 사업장을 잘 활용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이고 책무이라고 강조하고, 스토리 연계와 북부권 3대문화권 사업장 연계 등을 통해 경북 북부권 관광이 한층 성장할 수 있는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고회에 참석한 임병하 의원은 영주의 선비세상이 1,700억원에 달하는 예

산이 투입되어 만들어졌으나, 한 달에 6억원 가량의 운영비가 추가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빅데이터 분석에서 나타나는 영주 관광의 좋은 점인 '자연경관', '소백산국립공원'과 연계한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경민 의원은 3대 문화권 사업장의 접근성과 콘텐츠의 연계성이 매우 떨어짐을 지적하고, 경주의 투어버스 운영을 벤치마킹하고 각종 모빌리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경숙 의원은 문경새재에 대한 다양한 SNS홍보와 TV프로그램 제작으로 꾸준한 방문객이 있지만, 지속적인 관광활성화를 위해 관광객 유치에 최대한의 배려를 하고 있으며 숙박과 연계한 코스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도기욱 의원은 1조8천억원에 달하는 3대 문화권 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로 향후 유지관리비용의 증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소프트웨어 즉 콘텐츠에 대한 투자의 필요



성을 언급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북 북부권의 3대 문화권 사업장과 연계한 콘텐츠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관광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김대일 대표의원과 김경

숙, 김대진, 도기욱, 임병하, 정경민 의원 등 6명이 의원연구단체 "경북 북부권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서울시의회 황철규 시의원,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시설계획에

'국제실내사격장' 설치 제안

황 의원, '국제실내사격장' 설치,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는 지난 4일, 제320회 임시회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 회의에서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시설 내에 '국제실내사격장'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먼저 황 의원은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현황을 질의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은 코엑스~잠실 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 및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잠실운동장 일대를 스포츠, 전시·컨벤션, 공연·엔터테인먼트가 어우러진 글로벌 스포츠·MICE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한화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시설기본계획은 완료된 상태이다.

이어서 황 의원은 태능국제사격장의 철거로 현재 서울을 대표할 만한 사격장이 없고, 서울 사격선수들이 먼 지방까지 훈련을 가야하는 고충을 설명하며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계획 안에 서울을 대표하는 국제실내사격장 신설에 대한 검토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했다.

태릉선수촌이 위치한 태강릉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및 정비계획에 따라서, 근대문화유산으로 등재 예정인 태릉사격장과 태릉선수촌 시설이 현재

단계적 철거가 진행되고 있다.

황 의원은 " '국제실내사격장'의 경우에는 화성시에 위치한 '경기도 사격테마파크'가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실내사격장'의 경우 서울시 내 대체부지가 없고, 국제대회 유치도 어려운 상황이며, 사격장을 이용해야 하는 사격선수 및 학생들의 연습장소도 부족한 실정이다."고 강조하고,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의 시설 계획 내에 '국제실내사격장'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여정균 균형발전본부장은 "현재 시설기본계획이 완료된 상황이며, 시설 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한 상황이다."고 설명하고, "계획변경으로 사업비가 20%이상 증가하면 적격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므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제실내사격장 설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 '국제실내사격장'이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시설 내에 입지한다면, 서울을 찾는 해외여행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사격장을 찾는 일반인 이용객의 증가로 수익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잠실 스포츠·MICE 사업시설내 "국제실내사격장"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광수/기자

부산시의회 박철중 의원, "임산부 확진자 관리체계 개선 촉구"

코로나19 임산부 확진자를 위한 치료목적의 입원가능 병원 현황을 짚어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박철중 의원(수영구1, 국민의힘)은 25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코로나19 임산부 확진자의 치료목적 입원가능 및 분만가능 병원의 현황'을 짚어보고, 부산시의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에 대한 예방과 관리에 대한 책무가 부여하고 있음에도 코로나19 방역체계가 개편(경계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부산시의 임산부 대상 코로나19로 치료 및 분만가능 의료기관 현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부산시를 질타했다.

박 의원은 부산시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치료목적과 출산목적 입원 가능한 곳은 10개 구군 총 20개소였으나, 전수조사(전화조사)한 결과, 단 3개소만이 조건없이 입원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부산시는 중앙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조사서 내 임신여부 확인란이 없다는 이유로 임산부 확진자 현황조사 관리하지 않았으며, 대응체계조차 작동하지 않아, 코로나19 임산부 확진자는 여전히 갈 길을 잃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임산부는 코로나 사망 위험 7배라는 연구결과와 임산부 외상후스트레스, 불안, 우울 증상 사례가 증가하는 등 임산부가 느끼는 두려움이 높은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현재 임산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지정, 인정하고 있지만 관리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면, 코로나19 재확산을 대비하여 임산부의 분만 등 특수환자를 관리하는 특수병상 운영 및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또한, 임산부 확진자의 치료-입원-분만-산후관리 전 과정에서 부산시의 돌봄지원체계를 가동해주시기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3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임산부 확진자를 받아주는 병원을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언급하며, 임산부가 아플 때, 어디로 진료를 받으러 가면 되는지 정확한 안내 등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당부했다.

김희태/기자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를 기다립니다

시민의견 수렴하여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활용

대구시의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11.7~11.20.)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상황실을 운영하고 각종 시민제보 사항을 접수한다.

대구시의회는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30일간 시정 및 교육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및 시책개선, 예산 낭비 사례, 기타 시민 생활 불편 사항 등 대구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를 접수받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제보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감사 종료 후 제보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접수된 제보사항 중 시정의 불합리한 사항 개선, 시민의 불편 사항 우선 해소 등에 기여한 제보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계획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인 사항, 의장 및 의원을 모독

하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민제보는 대구시의회 홈페이지(팝업알림) 및 우편, 팩스, 방문 접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인적 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될 예정이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보 내용은 공개될 수 있다.

윤근수/기자

울산시의회, 추석맞이 농수산물도매시장 방문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22일 오후 12시 민속 최대명절 추석을 맞아 삼산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여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8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지역 수산물에 대한 시민 불안이 우려되는 가운데 시의회 차원에서 수산물 안전성 홍보와 소비 촉

진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의원들은 수산물도매시장 일대를 둘러보며 각자 준비한 현금을 이용해 추석 제수용품 구매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상인들과 소통하면서 격려에 나섰다.

이어 도매시장 내 식당에서 가을전어 등 수산물 오찬을 함께 하며 수산물 소비 진작 및 판매 촉진에도 힘을 모았다. 행사를 준비한 김기환 의장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일에 울산시의회가 솔선 수범하여 상인들의 주름살이 조금이나마 펴지기를 바란다."며 "시민들께서도 추석 성수품을 전통시장과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에서 구입해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황규진/기자



함께하는 민생의회 | 행동하는 정책의회

풍요로운 한가위

의회 | 대구광역시의회 | Daegu Metropolitan Council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 임석경 청소년책임보좌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경치부:내선 (112)	문화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회부:내선 (113)	부동산부:내선 (117)
	경제부:내선 (114)	오리언트부: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방부: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홈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물류창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미래형 안전관리 시스템 연구회'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하여 안전사고 예방방안 필요성 인식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이 회장으로 있는 '미래형 안전관리 시스템 연구회'는 9월 25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물류창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내 물류창고와 관련된 안전사고(끼임, 무너짐, 부딪힘 등)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경기도 내 물류창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기술과 사물인터넷(IoT)기술을 활용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발주됐으며 9월 25일까지 3개월간 진행했다.

허원 회장은 "착수 및 중간 보고회 때는 경기도 내 물류창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상시 점검 운용 실태조사를 통한 문제점을 분석했으며, 이번 최종보고회 때는 물류창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점검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기술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물류창고 내 안전사고가 감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 박종암 교수는 "경기도 내 물류창고와 관련된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그 대안으로 인공지능(AI)기술과 사물

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용 발생 증가와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하여 한계가 있으니 조례 제정 등으로 재정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허원 회장은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할 것"이며,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기술 도입으로 경기도 내 물류창고 안전사고가 줄어든다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장인 허원 의원을 비롯해 김중배, 박명숙, 유영두, 이재영, 이애형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 박종암 교수, 한준호 부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소규모 폐기물처리시설 화재 예방 길 열려

경기도화재안전조례 일부 개정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이 2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돼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화재로 인명이나 연막 등이 발생할 시 소방서장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조례안 통과로 사람에 의한 실화 또는 화재발생 초기 인지 등 화재 예방과 초동 조치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영 도의원은 "소규모 폐기물 처리 시설의 화재 오인 신고로 인한 소방력 낭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며 "신고 의무를 부여해 사전에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고 설명했다. 전자영 도의원은 "앞으로도 제도개선 등을 통해 경기도민의 안전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 해운물류 청년취업 아카데미 2차 교육생 모집

청년에게 더 고른 취업의 기회 제공

경기도와 경기평택항공사(사장 김석구)는 청년에게 "더 고른 취업 기회"와 "더 좋은 변화가 가득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2023년 경기도 해운물류 청년취업 아카데미' 2차 교육생을 모집한다.

'해운물류 청년취업 아카데미'는 해운물류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경기도 청년에게 해운물류 관련 실무 이론 및 현장 교육, 취업역량 교육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8월 한 달간 진행된 1차 취업아카데미에서는 교육생 28명 중 11명이 조기에 취업에 성공하며 40%의 높은 취업률을 달성했고, 특히, 취업리크루팅 등 구인기업-교육생간 취업매칭 프로그램이 교육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대한민국 청년(만19세~34세)으로서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소재 대학 졸업 및 졸업예정자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교육비는 무료이다. 지원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선발(면접)절차를 거

쳐 교육생 30명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선발된 교육생은 11월15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2월 13일까지 총 4주간 교육을 수강하며, 주요 커리큘럼은 ▲해운물류 기초 ▲인코텀즈 ▲선하증권 등 해운물류 관련 기본 및 심화이론 ▲취업설명회 ▲취업선배 멘토링 ▲항만견학 등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이다.

경기평택항공사 김석구 사장은 "도내 청년에게 더 고른 취업 및 진로개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기도 청년친화정책의 선도기관으로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09월 25일부터 11월 03일까지이며, 홈페이지(www.kiffa.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공고문에 기재된 전자우편(kiffa@kiffa.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평택항공사 물류마케팅팀(031-686-0671)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범상/기자

2023 경기도 해운물류 청년취업 아카데미

교육내용: 국제물류 및 항만 이론교육, 실무형 현장학습, 선하증권 등 기초이론 및 심화이론

교육기간/장소: 2023. 11. 15(금)~13(수) 10:00~17:00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영등포구청

신청기간: 2023. 11. 03(금)

교육대상/인원: 아래 ①, ②에 모두 해당하는 자 / 30명

① 대한민국 국민(만19세~34세) ②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소재 대학 졸업 및 졸업예정자

교육기관/장소: 2023. 11. 15(금)~13(수) 10:00~17:00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영등포구청

신청방법: 신청서(www.kiffa.or.kr)에서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kiffa@kiffa.or.kr)로 송부

문의: 02-733-8000 (내선-국립평택항공사 물류마케팅팀)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김홍빈 교수 국내 최초 미국의료역학회 석학회원 선임

미국의료역학회, 의료 감염 분야 세계적 권위의 학회로 의료 관련 감염 예방 및 의료 역학 분야 발전 위한 활동 수행 2012년 국내 최초 미국의료역학회 국제친선대사에 이어 석학회원 선임돼 감염관리 전문가로서 감염병 위기 대응, 항생제 적정 사용관리와 감염 분야 연구로 세계적 업적 인정

친선대사로 선정된 바 있다.

이후 2015년 메르스 유행, 코로나 팬데믹 등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감염관리에 크게 기여했고, 항생제 스텐어드십과 감염관리를 포함한 의료감염 분야 연구를 지속해 오며 감염관리 전문가로서 독보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김 교수는 그 업적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이번에 국내 최초 미국의료역학회 석학회원으로 선임됐다.

김홍빈 교수는 미국의료역학회 공식 저널인 'Antimicrobial Stewardship and Healthcare Epidemiology'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3년간 미국의료역학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또한, 미국감염학회(Infectious Diseases Society of America,

IDSA)의 한국인 석학회원 4명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김홍빈 교수는 "미국의료역학회 석학회원으로 선임된 것은 국내 의료 감염관리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리더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전 세계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국내 항생제 스텐어드십과 의료감염관리에 대한 지원 및 연구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보름달 처럼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의회 울릉군의회

제1회 수원도시건축문화제, 10월 10~15일 열린다

‘헤리티지(heritage) 수원’ 주제로 토크콘서트, 도시건축 투어, 전시회 등

수원의 도시건축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제1회 수원도시건축문화제’가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행궁동 일원에서 열린다.

‘헤리티지(heritage) 수원’을 주제로 열리는 수원도시건축문화제는 토크콘서트, 도시건축 투어, 전시회, 로컬크리에이터(지역 창작가)의 ‘전시X프리마켓’, 청소년 대상 도시건축 학교 등으로 이뤄진다.

토크콘서트는 10일 오후 2시 30분 정조테마공연장에서 열린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도시건축 전문가 등이 출연해 ‘헤리티지 시티(문화유산 도시), 도시건축으로 보는 유산의 새로운 해석과 가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12~15일 하루 2차례 진행되는 도시건축 투어는 건축사와 시민이 함께 수원화성 일원을 거닐며 도시건축 문화를 알아가는 것이다.

주간(오후 2~4시)에는 화성행궁 신공루에서 출발해 화성행궁·공방거리·열린문화공간 후소·수원 구 부곡원·구 수원시청사·수원향교까지, 야간(오후 5~7시)에는 화성행궁 신공루에서 출발해 화성행궁·수원천(버드나무길)·화홍문·용연·창룡문까지 여행한다.

전시회는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수원전통문화관에서 열린다. ▲수원 근현대 건축물 20선(사진전) ▲수원 건축사 작품전 ▲수원 도시건축 정책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의 도시 이야기(영상미디어전) ▲수원 도시자원(건축물, 공간, 문화재 등)에 대한 국내외 디자이너 100인의 재해석(국제 포스터전)을 주제로 한 기획 전시다.

로컬크리에이터의 전시 프로젝트는 10월 14~1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정조테마공연장 야외 공간에서 열린다. 수원에서 활동하는 로컬크리에이터 5팀이 유무형의 도시 건축문화 부스를 운영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건축 학교는 10월 11~13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한옥기술전시관 교육실에서 열린다.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건축사 지도 아래 모형 건축물을 만들고, 각 건축물 도시 기반 시설(도로 등)로 연결하며 소통하는 프로그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 화성은 1796년 10월 10일 축조됐고, 수원시는 정조대왕의 뜻을 이어받아 10월 10~15일 제1회 수원도시 건축문화제를 개최한다”며 “시민들이 도시건축문화를 즐겁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색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시민이 축제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화성시, 공공시설 중대재해 예방 회의 개최

화성시가 25일 하반기 중대재해의 무이행 점검에 앞서 공공시설의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회의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종철 화성시 부시장을 비롯해 주요 소관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일부터 100여 명의 중대재해예방 담당자를 대상으로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대시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사고·사례 교육을 실시했다.

임종철 화성시 부시장은 “명절을

맞아 대규모 인구 이동과 공공시설 등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내·외부 유해 위험요인 점검과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비상 대비 훈련 등에 초점을 맞춰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보건 분야 의무 이행 하반기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시형/기자



고양시, 추경 늦어져 부모급여, 장애인, 난임부부 지원 난항

부모급여, 장애인활동비, 난임부부 지원 급한데 시의회는 감감 무소식



고양특례시는 시의회의 2차 추경예산 처리지연으로 인해 부모급여(영아수당), 장애인 활동지원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제 276회 임시회가 2주간의 파행 끝에 아무런 소득없이 폐회되자 고양시 주요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인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복지 예산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부모급여(영아수당) 74억원 확보 차질...시예산 없으니 국도비 지출도 우려 우선 영아(만0~1세)를 둔 가정에 매달 주는 부모 급여 74억 원이 편성되지 않아 차질 다음 달부터 수당 지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모급여(영아수당)는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생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이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

세미만 아동이 대상으로 재원은 국비(75%), 도비(17.5%), 시비(7.5%)로 분담한다. 지원액은 만0세 70만원, 만1세 35만원이다.

고양시 대상자는 만0세 5,078명, 만1세 2,432명으로 올해 초 예산보다 총 2,025명이 증가해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액은 국도비 포함 총 74억5천만원이며 덕양구 52억4천만원, 일산동구 5억5천만원, 일산서구 16억6천만원이다. 이 중 국도비를 제외한 시비는 총 5억 5923만원이다.

부모급여(영아수당)는 국도비 비중이 높은 사업이지만, 국도비와 시비 비율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 추경예산이 수립되지 않으면 국도비 집행도 제약이 발생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예산지출의 절차가 복잡해지고 국도비 지급 시기에 따라 사업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밖에도 가정양육수당 26억2천만

원, 아동수당 18억3천만원, 기초생계급여 16억3천만원 등 대부분의 사회복지사업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비 예산조기소진... 추가예산 확보 시급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비는 대상자 증가로 인해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어 추가예산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장애인의 가구환경, 학교와 직장 등 사회생활, 출산·자립준비·보호자 임시부재 상황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올해 지원단가 5.2% 인상, 이용자수 증가, 월평균 이용시간 증가로 인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지난 7월 이미 예산 86%가 소진됐다. 현재 추가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집행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총 22억 5천만원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6억9천만원(시비 4억8천만원), 장애인활동 24시간 지원 2억4천만원(시

비 1억7천만원), 활동보조 가산급여 13억2천만원(시비 3억3천만원) 등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사업(경기형), 시작 못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임신을 원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의 의료시술비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 한국 출생률은 0.78에 그쳐 저출생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평균 혼인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부부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1회에 100만원을 훌쩍 넘는 난임치료비용으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 대한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시는 그동안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다가 경기도의 지원으로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가구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연령과 시술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이가 있으나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 최대 7회이며 인공수정은 최대 5회까지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가구까지 확대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 사업은 고양시 3개 보건소에 총 예산 6억4천만원(시비 1억6천만원)이며 도비 75%, 시비 25%로 구성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신규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첫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중이지만 예산심사 지연에 따라 의료기관(시술비) 및 대상자(약제비)에 비용 지급이 늦어지게 됐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추경예산 심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미 확보한 국도비 사용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답답하다”라며 “조속한 예산심의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지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영기/기자

성남시 모범시민 10명 선정·첨단산업, 안전 부문 등

10월 5일 ‘제50주년 시민의 날’ 시상 상패 받아

성남시는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쓴 모범 시민 10명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올해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6개 이던 모범시민상 표창 부문을 10개로 확대한 가운데 최근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 추천받은 후보자 30명 중에서 지역발전, 첨단산업, 안전 등 부문별 공적이 뛰어난 이들을 수상자로 뽑았다.

지역발전 부문은 박진진(30·남) 씨가 모범시민으로 선정됐다. 성남시 청소년 지도자인 그는 청년창업 자원 발굴과 네트워크 구축, 성남시 자매결연도시 간 청년교류 활동 등에 참여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했다.

첨단산업 부문 모범시민상 수상자는 (주)넥스트칩 대표이사인 김경수(58·남) 씨가 선정됐다. 김 대표이사는 성남시, 성남상공회의소 등 9개 기관과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업무협약을 하고, 전문인력 양성 교육, 혁신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해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했다.

복지 부문은 카페 율커피엔터 팀장인 김진옥(66·여) 씨가 모범시민으로 뽑혔다. 해당 카페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발달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봉사·나눔 부문 모범시민은 (주)에이스침대 대표이사인 안성호(55·남) 씨가 선정됐다. 성남지역 독거노인, 가정위탁 아동 등을 위해 올해로 25년째 쌀과 참치캔 선물세트 등 32억원 상당을 기부해 나눔문화를 확산했다.

효행·선행 부문 모범시민은 (주)한국주거환경협회 대표인 김상규(69·남) 씨가 뽑혔다. 2009년도부터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600여 가구의 도배, 장판 교체 등 집수리 봉사 활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난복구 활동, 복지관 배식 봉사, 생필품 지원 등 선행을 펼쳤다.

환경 부문 모범시민은 상대원1동 해피마을 상인회 부회장인 안순자(59·여) 씨가 선정됐다. 지역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마을 환경정비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다.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위한 홍보활동도 전개해 환경보호에 애쓴 공을 인정받았다.

건강증진 부문 모범시민 선정자는 성남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인 박춘원(53·여) 씨다. 위기·취약계층 청소년 치료 지원, 시민 보건의료축제 개최 등 지역주민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인권증진 부문 모범시민은 봉사단체 ‘사랑하는 호스피스’ 대표인 이학재(69·여) 씨다. 이 대표는 취약계층 환자의 장례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웰다잉문화 조성에 힘을 쏟아 인권 의식을 높이는 데 공헌했다.

안전 부문 모범시민은 중원구 자율방범연합대 수석 부대장인 강건규(50·남) 씨다. 야간방범 순찰 활동, 안전 귀가 지도, 청소년 선도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해 힘썼다.

우수 청소년 부문 모범시민은 성남외국어고등학교 3학년 이수아(18·여) 씨다. 어려움에 닥친 친구를 돕는 등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학교생활을 해 다른 학생들에 모범을 보였다.

이들 모범시민 선정자는 오는 10월 5일 성남아트센터에서 개최하는 제50주년 시민의 날 기념식 때 성남시장 명의의 상패를 받는다.

성남시는 1981년도부터 모범시민을 발굴·시상해 이년까지 43년간 291명이 모범시민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김범상/기자

<성남시 모범시민상 수상자 10명>

지역발전 부문 박진진 씨	첨단산업 부문 김경수 씨
복지 부문 김진옥 씨	봉사·나눔 부문 안성호 씨
효행·선행 부문 김상규 씨	환경 부문 안순자 씨
건강증진 부문 박춘원 씨	인권증진 부문 이학재 씨
안전 부문 강건규 씨	우수청소년 부문 이수아 씨

청년들이 직접 기획한 제4회 안양청년축제 ‘청년휴양지’성료

안양시는 ‘제4회 안양청년축제’가 지난 23일 오후 12시부터 18시까지 안양 시청 앞마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4회째를 맞은 안양청년축제는 지역 청년들이 기획 단계부터 준비 과정까지 직접 참여하는 등 청년 중심으로 진행되어 더욱 의미 있는 축제다.

올해 축제의 슬로건은 ‘청년휴양지’로 청년들이 휴식하고 마음의 양식을 채우며 지식을 얻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획단의 의도를 반영하여 행사를 추진했다.

이날 정오부터 열린 축제에는 범진·고양이 용사 등 12개팀의 버스킹 공연이 연이어 펼쳐지며 청년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이어 청년축제 기념식이 개최돼 청년상 5개 부문 선정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으며, 연성대 K-POP과 학생들의 열정적인 축하공연과 남성성·유다빈밴드 등 가수의 공연이 펼쳐졌다.

이 외에도 VR 체험을 비롯해 캐릭터

제조와 메이크업, 요가, 캐리커처, 홀트레이닝 체험 등 청년들의 취향을 반영한 23개의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방새를 안양청년축제기획단장은 “찾아와주시 많은 청년들이 이번 청년축제 슬로건처럼 힐링하는 시간을 보냈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내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안양에서 청년들이 더 크게 비상할 수 있도록 안양시가 든든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광주시, 추석맞이 농산물 팔아주기 성황리에 마쳐

광주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추석맞이 농산물(배·버섯·축산물) 팔아주기'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돕고자 마련된 이번 직거래 행사에서는 배와 버섯, 축산물 등을 시중가보다 10~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했으며 신선하고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시민들의 호응이 높았다.

추석맞이 농산물 팔아주기는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이메일과 전화로 사전 주문을 받아 22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광주시청 본관에서 현장공급이 이뤄졌으며 총 2천513박스, 8천여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참여 농업인들은 "추석을 앞두고 경기침체로 농산물 판매가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이 농산물 팔아주기에 동참해 농가에 큰 힘이 됐다"며 "광주시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농산물 팔아주기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가와와 상생과 더불어 건강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직거래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병상/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경기도의회가 예산 삭감한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 도의회와 상관없이 꼭 설립"

경기도의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체험센터 설립 지원 위한 경기도교육청 예산 2억원 모두 삭감... 장애인 단체 강하게 반발



이상일 시장이 경기도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무슨 행동을 하든 개의치 않고 용인특례시가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체험센터를 세우고, 설립과 운영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센터 설립을 바라는 장애인들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공모사업이다. 용인특례시는 얼마 전 부산광역시와 전라남도 목포시와 함께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용인특례시는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를 연다는 계획을 세웠다.

용인특례시는 체험센터 장소를 제공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는 3억원의 예산으로 관련 시설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 학생들이 활용할 가상현실 장비와 교육 콘텐츠 제공을 위한 예산 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체험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고, 경기 남부지역 장애인과 장애학생들의 체육활동, 체험교육을 활성화하는 거점 시설이라는 점에서 용인 뿐 아니라 경기도 전체 장애인과 장애 학생, 학부모 등이 큰 기대를 나타냈다.

용인특례시는 미르스타디움으로 이전한 옛 차량등록사업소 건물에 이 체험센터를 설립하기로 하고, 장애인 화장실 설치, 건물 외관과 내부 보수 등에 필요한 1억원의 예산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는 등 센터 개소 및 운영 준비에 박차를 가해 왔다.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가 들어설 옛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는 시청

과 가깝고 건물 공간이나 주차장이 넓어 장애인과 장애 학생들의 체육활동, 체험교육에 적합한 곳으로 평가받았다.

시는 이곳에 경기남부지역 장애인, 장애 학생들에게 맞춤형 운동을 처방하는 '체력인증센터'까지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와 '체력인증센터'가 함께 설립되는 것은 전국에서 유일하다.

이상일 시장은 "이미 충북 천안시와 전북 익산시, 인천광역시엔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장애인과 장애 학생들 뿐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이용 가능한 좋은 시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용인특례시에 경기도 장애인과 장애 학생을 위한 체험센터가 생긴다고 해서 많은 이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파적이고 편협한 시각에서 예산 삭감을 주도한 것은 장애인들을 무시하는 매우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용인특례시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 소속으로 부천 출신인 경기도의회의 교육기획위원장이 지역 편중 운운하며 반대한 것에 대해 용인의 장애인단체 등에서 '용인에 체험센터가 설립되는 걸 배가 아파서 못보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용인 뿐 아닌 경기도의 다른 도시 장애인 단체들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를 용인에 설립하겠다는 것은 경기도의회가 아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공모사업이고, 경기도교육청도 공공해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부천 출신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이 마음대로

예산을 깎고 경기도의회 예결위에서 예산을 살리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권한남용에 가까운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상일 시장은 "문제의 경기도의회는 장애인과 장애학생 등으로부터 큰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일부 민주당 도원들이 아무리 발목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용인특례시는 장애인과 장애 학생의 체육활동, 체험교육을 위한 시설을 만드는 일을 독심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황진희 교육기획위원장은 주도로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센터'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장애인 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은 경기도의회 예산 삭감에 대해 경기 남부권 장애인 학생들의 미래를 짓밟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의 사과와 설명을 요구했다.

용인 지역 내에서도 같은 날 '경기도장애인문화협회 용인시지부',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 용인시지부', '(사)반딧불이',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용인시지부' 등 4개 장애인 단체에서도 경기도의회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용인 장애인단체 등에서 "경기도의회 예결위에서 용인 출신 김성희 도의원 등이 상임위원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용인 출신 민주당 도의원 일부는 반대까지 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왔는데, 사실이려면 경기도의회에서 용인 대표로서 역할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병상/기자

안산시 공직자, 사회적 가치 실현 동참... 사회적 경제 체험교육 실시

안산시는 회계·물품 구매 담당자 등 공직자를 대상으로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이해와 사회적경제 체험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품 판로를 지원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일부터 26일까지 총 4회에 걸쳐 회차별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교육은 사회적경제 이해 교육과 관내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직접 소개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교육내용은 ▲ESG환경 체험, 홍이와 먹이 아로마 비누와 캐릭터 방향제 만들기(사회적기업 ㈜자연미감) ▲핸드드립 커피체험 및 드립백 만들기(들꽃피네사회적협동조합) ▲수제 레몬청 만들기(마

을기업 협동조합마카페마실) ▲공정무역 물품과 함께하는 공정무역 이야기 등이 진행됐다.

관내 사회적기업 소개에는 ▲사무용품 및 제품생산 분야(경기남부두레생협, 두빛나래사회적협동조합, 요리조리 사회적협동조합) ▲시설 및 청소분야(㈜청보, ㈜코리아클린체인지서비스, ㈜선우종합관리) ▲문화·예술분야(㈜티알멀티스포츠센터, ㈜아코드, ㈜아트벨라르메) ▲교육 및 체험활동 분야(꿈꾸는드림보사회적협동조합, 도시숲센터사회적협동조합, ㈜창의특수센터) 등이 소개됐다.

황병노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부터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경제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광명시, 학부모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 성료

광명시는 지난 15일과 22일 2회에 걸쳐 학부모를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AI(인공지능)와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청소년의 진로 진학과 연계하여 학부모들에게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학부모들은 인공지능 시대의 변화와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머신러닝 모델, 구글 티처블머신 활용 등 인공지능 이론을 실습과 함께 교육받았

다. 이와 함께 진로 진학 상담 Q&A 시간을 통해 개별적으로 상담하며 디지털 분야 진로 진학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연수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AI의 역사와 여러 변천사부터 미래까지 자세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았다"며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자녀의 진로 진학에 대한 고민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고민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양한 디지털 분야 학부모 교육과정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학부모 연수를 시작으로 학부모들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해와 디지털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광명시는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디지털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도록 돕기 위해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윤용민/기자



경쟁의심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동해안 청정해역! 안전한 우리 수산물!

우리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김영록 전남도지사, “지리산 케이블카, 지역경제 도움될 것”

남원시, 전북도 농공단지 환경개선 공모사업 선정

“전북·경남 등과 논의해 다각적 대응 방안 마련” 피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5일 “지리산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관광객 유입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구례군 마산면민회관 청마관에서 김순호 구례군수, 김수

이 자리에서 김영록 지사는 “정부에 전북·경남 등과 함께 3개 도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지속해서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월 아이쿱생협과 체결한 2천17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으로 메디푸드 개발하고 500병상 규모의 암·만성질환을 치료하는 치유병원이 건립되면, 지역에 1천명의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메디푸드와 치유병원을 자연드림파크와 연계한 치유·힐링 기반의 6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순호 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권역별 체류 시설을 늘려 미래 성장 동력으로 기대되는 섬진강 일대 오산권역 관광레저 클러스터와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를 조성해 구례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례군은 이날 군민들의 대표 휴식 공간인 봉선산 근린공원 산책로(4.8km)와 쉼터(2곳) 등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야간경관 조성을 위한 가로등 설치와 전망센터 조성(10억 원) 등 도비 지원을 건의했고 김영록 지사는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구례군민들은 양수발전소 유치 등 지역 현안을 잇따라 건의했다. 정만수 문척면 양수발전소 유치위원장은 “양수발전소 유치 시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최근범 문척면 구성마을 이장은 “구문척교 철거 이후 신 문척교 통행량이 증가해 인근 주민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문척교 인도 확장을 건의했다.

강정운 구례읍 봉북리 이장은 “서시천변 일원에 섬진강 3백리 벚꽃축제 시 벚꽃 야행을 즐길 수 있는 경관조명을 추가로 설치해 구례를 찾는 방문객과 군민에게 휴식과 힐링의 공간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구례 간전중대~광양 옥룡간 지방도 승격 ▲구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친환경 농업과 연계한 벚꽃원사업 ▲구례 우리밀 응복합 지원센터 조성 등 안건도 제시됐다.

김영록 지사는 “군민들이 건의한 안건은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해 전남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며 “지역 발전을 도모할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해, 구례군이 전남의 구심적 역할을 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노암 농공단지 구내식당 개선 사업비 2억 확보

남원시는 관내 중소기업 근로 종사자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전북도가 추진하는 농공단지 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2억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남원시는 공모 선정된 사업비로 우선 노암 농공단지 구내식당 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노암 농공단지협의회를 통해 제안된 근로자 편의 공간과 휴게실 등을 확충해 나갈 복안이라고 밝혔다.

시는 기존 산업단지들은 공장 중심으로 조성되어 근로자의 편의 복지시설이 부

족한 상태가 많으며, 최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에 맞춰 최근 근로 친환경적인 정주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지역 청년을 비롯하여 다양한 근로자 유입을 촉진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다.

시는 현재 이와 관련하여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조성을 비롯, 노암 LH행복주택 등 친 근로자 환경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산업단지 내 정주환경과 복지 편의시설 등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함평군 샤인머스켓, 캄보디아로 첫 수출

순천시, 청년이라 행복했던 일주일의 스케치!

함평꽃무릇수출포도 영농조합법인 샤인머스켓 7.2톤(1.4억원) 수출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순천과 청년이 하나된 청년주간 성료

전남 함평군의 지역특화작목인 ‘함평 샤인머스켓’이 캄보디아로 첫 수출길에 올랐다.

26일 함평군은 “함평 샤인머스켓 캄보디아 수출 상차식이 이삼익 함평군수와 함평꽃무릇수출포도 영농조합법인 김용오 대표, 수출 업체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25일 해보면 대창리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은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에 이은 아시아 국가 중 네 번째이며 지난 7월 이삼익 군수의 캄보디아 출장을 통한 교류 협약의 성과다.

수출 계획 물량은 총 7.2톤으로 함평꽃무릇수출포도 영농조합법원에서 생산한 평균 18브릭스(Brix) 이상의 고품질 포도를 수출하며 이번 1차에는 480kg을 상차했다.

군은 최근 샤인머스켓 재배능가 증가로 인한 공급량 급증에 대비해 샤인머스켓 수출단지 조성과 유통비용 절감을 위



한 포장재 지원 등 ‘함평 샤인머스켓’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도 함평 샤인머스켓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삼익 함평군수는 “함평 전략작목으

로 확대 재배중인 샤인머스켓 농가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고품질 샤인머스켓 생산 지원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순천시는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청년이 주도하고 행정이 서포트한 청년이라 행복한 ‘2023년 순천 청년주간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청년이 행복했던 일주일을 살펴보면 ▲지난 16일에는 순천만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에서 2,000여 명이 참여한 ‘2023년 순천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기념식, 유(학생)퀴즈대회, 가족공감프로그램 및 각종 체험존, 홍보존, 전시존, 청년창업존, 포도존 등 다채로운 참여프로그램으로 구성했으며 이날 행사는 지역의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과 청년세대가 함께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었다.

특히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취업과 관련하여 최근 순천에 투자유치를 결정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순천의 중견기업인 ‘(주)파루인쇄전자’에서 직접 부스를 운영하여 청년들에게 기업 채용 정보와 면접 방법 등을 컨설팅하여 눈길을 끌었다.

외국인청년퀴즈대회 ‘유퀴즈딩동댕’ 참여자 A씨(25세, 스코틀랜드 출신)는 “비가 많이 와서 갈까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담당자의 꾸준한 설득으로 참여를 결정했는데, 참여하지 않았다면 정말 아쉬웠을 만큼 재미있고 의미있었다”라고 전했다.

세대연결프로그램 ‘가족공감’에 참여한 조모씨(39세, 조례동)는 “평상시에 가족이 이렇게 함께 모일 일이 별로 없었는데, 같은 티셔츠를 입고 한마음을 한 뜻으로 다른 가족과 대항하여 게임을 하니 가족간 대화도 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변 친구들이 매우 부러워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18일에는 장천노랑극장에서 순천시청년정책협의체가 주관한 청년주도 담론회 ‘그래서 순천’이 개최됐다. 청년정책 전문가인 씨앗문화협동조합 김주영 대표와 목포 관촬아마추어 홍동



우 대표, 순천에서 활동하는 청년 4명이 왜 순천에 머물러야 하는지에 대하여 참여자 50여 명과 함께 경험담을 나누고 해답을 찾아갔다.

지난 22일에는 순천시청년센터에서 ‘청년희망아카데미&네트워크파티’가 열렸다. 1부에서는 공장공장 박명호 대표를 초청하여 ‘청년들이 소도시에서 변화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특강을 진행했고, 2부에서는 순천시청년정책협의체와 농업청년, 대학생 등 청년 60여 명이 모여 각자의 삶과 관련된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원기 순천시청년정책협의체 위원장은 “순천시청년정책협의체 주도로 기획한 청년 참여프로그램이라 준비하는 데에 어려운 부분도 많았지만,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러 분야의 청년들을 만나는 기회였고 청년 스스로가 지역의 문제를 논하는 자리였기에 더욱

뜻깊었다. 이번 계기로 앞으로는 더 많은 지역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이 됐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지난 19일에는 브루웍스에서 지역청년 및 전문가 200여명이 참여한 ‘2023 대한민국 인구포럼 in 전남 - 나 혼자 안 산다’와 지난 21일에는 순천시청년센터에서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45명이 참가한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 성과공유회’가 열렸으며, 청년주간 기념 이벤트도 운영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청년주간 행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으로 구성된 행사기획단과 함께했던 만큼 다양한 세대의 청년에게 딱 맞는 행사로 다채롭게 꾸릴 수 있었다”라며, “청년주간 행사가 청년문화를 형성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머무르는 이유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승준/기자

나주시, 냉해피해 재난지원금 57억7000만원 확정 ... 추석 전 지급

1886농가 대상, 금천-봉황면 특별재난지역 국비 추가 지원

전라남도 나주시가 지난 4월 냉해 등 이상저온으로 과수·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추석 명절 전 지급한다.

나주시는 지난 4월 냉해 피해에 따른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농업인 1886명(피해 총 면적 1719ha)에게 57억7000만원(국비74%, 도·시비 각각 13%) 규모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나주시역은 지난 4월 이상저온 현상으로 최저기온이 영하 2.3도(°C)까지 떨어지면서 과수 꽃눈 고사 및 착과불량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1886농가에 대한 정밀 피해조사를 하고 58억원 규모 복구계획을 수립했다.

작물별 피해 현황에 따르면 전체 피해 면적 1719ha 중 과수(1633ha)는 배가 1477ha로 가장 많았으며 단감 53.8ha, 복숭아 44.2ha, 기타 58ha로 조사됐다. 채소류(86ha)는 양파가 80ha, 고추 6ha 등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전체 읍·면·동 20곳 중 금천, 봉황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해당 지역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일반재난지역일 경우 지원받는 항목에서 건강보험, 전기, 도시가스, 통신요금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재난지원금은 국비와 지방비, 2차에 걸쳐 개인 통장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올봄 개화기 냉해 피해가 극심해 예비비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편성했다”며 “명절 전 신속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의 안정된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진도군, 제21기 민주평통 진도군협의회 출범식 개최

완도해경, “안전한 바다” 낚시어선 불법 근절 특별단속



완도해양경찰서는 추석 연휴 및 낚시 최성수기 기간을 맞아 과속 등 불법 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9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34일간 가을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 완도 관할구역 내 가을철 낚시 이용객은 117,372여명으로 한 해 이용객의 약 30%에 달하며, 올해도 가을철을 맞아 많은 낚시레저객들이 완도 관내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9월 말부터는 추석 연휴 기간으로 과속 및 허위 출항 신고 등 안전 위해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위반행위 특별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완도해경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과속 ▲음주운항 ▲영업구역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신분 미확인 등 주요 안전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특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히 단속할 것이며, 경미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등 계도를 통해 위험요소 사전 제거할 예정이다”며 “이번 특별단속은 사업자 대상 경각심 고취가 목적, 위반행위 근절과 선박사고 예방에 한발 더 나아가길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양영율/기자



진도군이 제21기 민주평통자문회의 진도군협의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제21기 김남중 협의회장이 취임하고, 김희수 진도군수와

장영우 진도군의회 의장, 군의원, 자문위원,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출범식은 위촉장 수여, 자문회의 기(旗) 전달, 민주평통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활동방향을 공유하며 협의회 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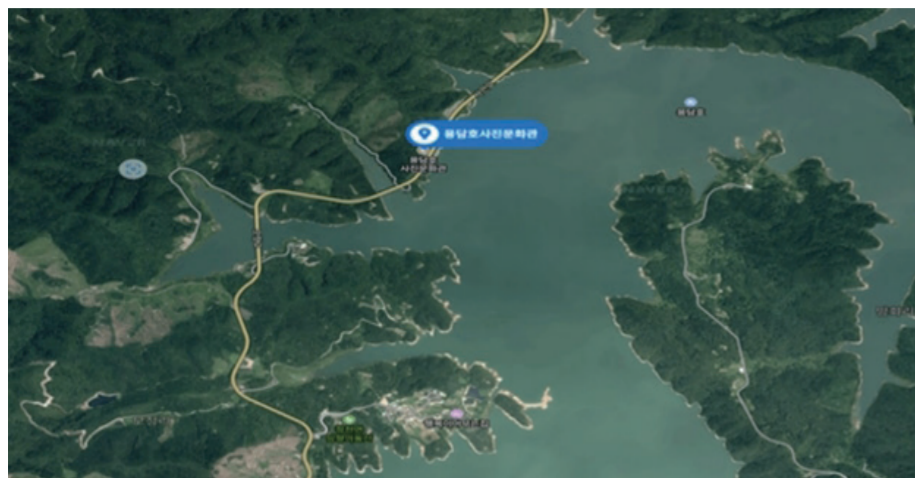
인준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제21기 민주평통자문회의 진도군협의회는 도·군의원 지역대표 8명과 직능대표 40명 등 총 48명으로 구성됐다.

민주평통 진도군협의회는 ▲2023년 2차~3차 직능별 정책회의 참석 ▲2023년 민주평통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 후보자 추천 ▲11월 중 청소년 평화 공감 현장 견학 ▲12월 중 중학생 대상 역사 통일 골든벨 개최 등의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남중 민주평통 진도군협의회장은 “민주평통통일자문회의는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며, 앞으로도 통일로 한발 다가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전북도, 용담댐 '특별지원사업' 최다 확보

2024년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으로 국비 29억 확보



전북도는 2024년도 상수원관리지역 특별지원사업에 진안군 등 3개 시군(4개 사업)이 모두 선정되어, 전년 대비 3배에 해당하는 국비 29억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024년 특별지원 총사업비 34억원 중 85%에 해당하며, 도내 상수원

관리지역의 3개 시·군(진안·무주·장수) 모두가 선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전북도와 시군의 협업으로 큰 성과를 얻게 된 결과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시·군에서 신청해 1차 전북도에서 사전검토 및 보완 후 수질 개선 효과가 높거나 시·군 추진의지가 높

은 사업을 대상으로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제출한 것으로, 2차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금강수계 4개 광역시도에서 총 19개 사업을 신청했으며, 2차 본심사에 12개 사업이 발표하여 8개 사업이 선정됐다. 전북은 4개 사업을 발표해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용담댐 담수 후 20여년 동안 진안군은 2개 사업으로 용담호사진문화관 개선공사*는 용담댐을 찾는 외부 관광객 유입 증가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오수의 수질개선을 수질개요충량 목표수질 개선 등 개발과 보전의 일석이조 효과에 기여하고, 상조림마를 친환경연료(LPG) 공급사업은 76가구에 안정적인 연료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주군은 유동마을 하수처리시설 사업으로 용담댐 하루 수변구역으로 유입되는 생활오수를 적정 처리하으로써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공공수역 수질보전

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수군은 친환경연료(LPG) 공급사업으로 2023년에 이어 연속으로 지원토록 공모한 사업으로, 64가구에 추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안정적인 연료 사용 뿐만 아니라 수질개선 및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담댐 담수 후 20여년 동안 (2003~2023년) 무주·진안·장수 3개 시·군에 특별지원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으로 금강수계기금 520억원이 지원됐으며,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등 수질개선사업으로 3,230억원이 지원됐다.

강해원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특별지원사업 선정으로 용담댐 상수원관리지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구례 양수발전소 유치 서포터즈 발대식 갖고 결의 다져

전남 구례군이 9월 25일 구례 섬진아트홀에서 '구례 양수발전소 유치 서포터즈'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순호 구례군수, 구례군의회 김수철 부의장과 군의원, 이현창 전남도의원, 정만수 문척면양수발전소유치위원장 등 300여 명이 참여했다.

구례 양수발전소 유치 서포터즈는 구례군 양수발전소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의 자발적 모임이다. 서포터즈 모집은 지난 18일부터 시작했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약 3천 명이 가입하여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뜨거운 열정을 보여줬다.

서포터즈는 한명 한명이 명예 홍보요원

으로서 구례 양수발전소 유치 필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서포터즈 가입은 후보지가 선정되는 11월까지 구례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김순호 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양수발전소는 우리의 자녀와 그들의 자녀에게 물려줄 무한한 가치가 있다"며, "유치 서포터즈의 힘을 모아 반드시 양수발전소를 유치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발전사업자 의향 조사 공고를 실시하고 10월 중 사업 신청을 받아 11월 사업대상자와 발전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성현/기자



“강진읍 활성화 최우선, 잘 사는 강진 만들겠습니다”

‘강진이 잘 살기 위해서는 강진읍시장과 중앙로 상권 활성화가 최우선입니다. 잘 사는 강진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진원 강진군수가 지난 24일과 25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강진읍시장과 중앙로 상가 등을 잇따라 방문해 지역 내 소상공인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열심히 생업을 이어가는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과 중앙로 상가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임영관 중앙로상가번영회장, 김동삼 강진군소상공인연합회장과 함께 어깨띠를 두르고 상가들을 방문해 일일이 상인들과 소통했고, 상인들은 환하게 화답하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더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원 군수는 “상권쇠퇴를 극복할 수 있는 상권활성화 공모사업에 적극 도전해 함께 잘 사는 강진을 만들어 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군에서는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강진원 군수, 추석 앞두고 읍시장·중앙로상가 방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다양한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앞으로도 많은 소상공인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어 각종 지역축제와 연계해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중인 공공배달앱 ‘먹개비’ 입점 홍보 및 9월부터 도입돼 현재 사용 중인 강진사랑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착(Chak)의 필요성과 사용법 등도 함

께 안내했다.

이번 추석맞이 상가 방문은 최근 경제 불확실성, 고물가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 등 다양한 영향으로 지역상권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상가 관계자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값진 소통의 시간이 됐다.

강진원 군수는 상가들을 돌며 만난 군

민들께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과 지역상가를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돼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강진을 방문하는 향우들을 비롯해 모든 군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전 분야를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내 주변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함을 나누는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강진군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정책 수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창구 원스톱 추진을 위해 지난 7월 강진군소상공인지원센터를 개설했다.

소상공인 육성을 통해 안정적인 영업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표이며,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무, 행정,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28일까지 강진읍시장에서 5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5,000원 권 강진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은행사와 배송도우미 등 전통시장 구매 편의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주윤호/기자

목포해상W쇼 추석연휴에도 정상공연, 가족들과 함께 오세요!

명절 연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환상적인 밤 선사

화려한 불꽃으로 목포의 밤을 수놓는 2023년 목포해상W쇼의 정가공연이 추석연휴인 이번 주 토요일 개최되어 환상적인 밤을 선사할 예정이다.

매일 마지막 주 토요일 평화광장 해상무대 일원에서 펼쳐지는 목포해상W쇼는 지난 공연에서 웅장한 초대형 불꽃쇼를 선보이며 많은 관광객으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현재 목포 대표 야간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W’가 분수모양을 연상시키는 점에서 착안된 W쇼의 명칭은 물(Water)에서 펼쳐지는 세계적인(World), 멋진(Wonderful)공연으로 감동(Wow)을 선사하는 쇼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러한 이름에 걸맞게 국내 유일 해상오브제 불꽃쇼로 독보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번 공연은 “Dive to love” 목포와 사랑에 빠지다! 라는 주제로 청춘의 꿈과 풋풋한 연애를 친숙한 음악으로 풀어낸 뮤직박스 뮤지컬을 선보인다. 사진 이벤트도 펼쳐진다. 시는 관광객 참여 현장 이벤트를 진행해 관광객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이에 더해 전국체전과 관련된 퀴즈 등으로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전 공연으로는 지난 6월 큰 호응을 얻었던 “싸이버거의 댄스 퍼포먼스”가 진행되는데, 공연관람에 기대를 갖는 관객들의 열기를 끌어 올릴

예정이다. 시는 화려한 목포해상W쇼를 위해 해상무대에 LED조명을 추가 설치하고 중형 불꽃 드론 연출을 추가로 운영하는 등 공연향상을 도모했고, 불꽃 소음관련 민원에 대해 바지선 위치 후방 이동, 불꽃 크기 축소 등을 반영했다.

특히 이번 공연부터는 제 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행사와 연계한 부스 운영과 이벤트를 진행함으로써 두 행사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준비 중이다.

시 관계자는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곡과 장르의 공연이 펼쳐진다”면서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목포시민, 관광객 모두 목포해상W쇼를 통해 가족들과 행복한 추억을 가져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공연당일은 명절 연휴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목포시도 유관기관과 협조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관객 여러분들도 질서를 준수해 안전하고 모범적인 공연 관람 문화를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편, 목포해상W쇼는 이번 정가공연을 포함해 10월 14일, 10월 28일, 11월 4일, 11월 25일까지 총 5번의 공연이 남아 있다.

박종배/기자

화순군 2024년 신규 상수도 사업 ‘국비 93억 확보’

일자리 창출 기대...신속한 사업추진 생활 불편 최소화

화순군은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2024년 상수도 분야 신규사업으로 '186억 원(국비 9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군은 2023년도 상수도 사업으로 '백악 정수장 개량 사업(106억)·동북정수장 개량 사업(110억)·화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282억)·화순읍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256억) 총 4건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사업의 완결성을 위해 군수를 비롯한 직원이 혼연일체

가 되어 중앙부처와 끊임없이 협의를 진행한 결과 국비를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신규 확보한 사업비는 '·화순군 노후 상수관 망 정비사업'으로 총 186억 원(국비 93억 원)으로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통한 군민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사업 본연의 목표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군의 상수도 행정 선진화와 군민 생활편의 증진'이라는 가치 아래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



명한 결과이며, 사업 구역 내 유수율을 85%까지 향상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절감한 유지·관리 비용을 시설

개선에 재투자하는 등 수도사업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윤경호/기자

신안 홍도에서 섬 불불락 축제 성황리에 마쳐

신안 홍도 불불락 입맛 손맛 최고!

신안군은 지난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홍도 마을광장에서 개최된 '섬 불불락 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올해 섬 불불락 축제는 800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고 수산물 짝꿍 경매, 불불락 버거 요리 시연, 유람선 섬 투어, 불불락 선상 낚시체험, 불불락 가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특히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는 숯불로 구운 불불락구이를 시식할 특별한 기회가 제공됐으며, 축제 기간 불불락 20% 할인판매로 신안군 불불락의 맛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신안군 관계자는 “최근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먹기를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맡겨 방사능 불검

출 결과를 받았으니 안심하고 신안군 수산물을 드셔도 된다”라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아름다운 가을 하늘 속에서 관광객들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라며, 신안군은 연중 내내 다양한 수산물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맛있는 수산물을 즐기며 신안군의 우수한 농수산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며, 내년에도 수산물 축제를 기대해도 된다”라고 말했다.

현재 신안군은 5월 홍어, 깡다리, 낙지 축제 6월 병어, 간재미 축제, 8월 민어, 9월 불불락, 양새우, 우럭 축제, 10월 새우젓 등 계절에 가장 맛있고 많이 잡히는 시기에 맞춰 지역 수산물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김영진/기자



경북이 이끈 스토리 큰 잔치 “성황리 종료”

경북 콘텐츠진흥원 개최 ‘글로벌 K-스토리 페스티벌’ 호평 속 폐막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글로벌 K-스토리 페스티벌’이 지역 창작자들의 호평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K-스토리 IP의 무한확장’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페스티벌은 지난해 보다 더 풍성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지역 창작자들의 참여폭이 커

져서 좋았다는 반응이 많았다. 특히 사전 선정한 10개 작품의 창작자들이 자신의 스토리를 다양한 콘텐츠 분야 제작사와 현직 PD 앞에서 설명하고 작품 제작의 기회를 만들기 위한 자리를 만들어 큰 관심을 모았다.

또 경북 영상콘텐츠시나리오 공모전이 배출한 유명작가 백미경의 강연도 눈길

을 끌었다. 백 작가는 자신의 집필 경험을 통해 예비창작자들에게 명작이 탄생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좋은 소재를 찾아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의 소중함을 생생하게 들려주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의 환영사와 함께 ‘한국 영화제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前 집행위원장과 김인규 KBS 前 사장, 김대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는 스토리 분야 관계자들과 작가, 예비창작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경북이 가진 무궁한 스토리 소재에 대한 관심도 불러일으켰다.

한편 이번 페스티벌에서 특별 기획한 스타 팬미팅 프로그램도 화제였다. 뮤지컬 ‘미스 사이공’ 투이 역을 맡았던 배우 마이클 리가 직접 팬들과 만나 뮤지컬 장면 속 노래를 부르며 작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호평을 받았다. 또 영화 ‘범죄도시’의 강윤성 감독도 ‘OTT시대 K-글로벌 진출 사례’ 특강으로 현재의 트렌드를 반영한 현장의 목소리를 실감나게 전해주었다.

별도로 마련한 전시공간도 화제였다. 먼저 진흥원이 진행한 ‘스토리 작가 교육과정’과 권역별로 운영한 ‘스토리클

럽’에 참가한 지역 창작자들이 본인들의 작품을 전시했다. 특히, 교육생 중에는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작가로 데뷔한 분도 있었고 발달 장애를 딛고 책을 집필하는 등의 성과를 낸 작가도 있어 이목을 집중시켰다.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교류를 통해 웹툰 작품을 공동으로 전시하여 향후 협업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의 첫 시작을 알렸다. 그 외에도 진흥원에서 지원한 스토리 콘텐츠들을 재미있게 전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둘째 날인 23일 진행된 스토리 콘퍼런스에서는 네이버 웹툰, JTBC 드라마 제작사 등 현업 PD와 인문콘텐츠학회 소속 학자 등이 스토리산업의 확장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어 전문가들이 ‘지역 스토리산업 발전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중수 진흥원장은 “경북의 스토리가 우리나라 스토리 산업을 이끌고 나아가 세계로 펼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 풍성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행사에서 스토리의 무한한 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며 토론한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울진을 위한 청년들이 만든 발걸음, 후포 해변 ‘플로깅’하다

울진군은 지난 24일 후포해수욕장에 서 청년정책협의체 청년복지분과와 함께 ‘플로깅’행사를 진행했다.

플로깅이란 스웨덴에서 시작된 어원으로 ‘줍다’라는 뜻의 플로카 우프(plocka upp)와 조깅(jogging)이 합쳐진 단어이다.

쓰레기를 줍는 조깅 또는 줄여서 ‘줍깅’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이 활동은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처음 SNS로 퍼지기 시작했다. 현재는 대학생아리, 자원봉사단 등 다양한 단체에서 숲과 공원 또는 해변 플로깅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청년정책협의체 복지분과 외에도 지역 청년들이 울진을 아끼는 마음으로 주말임에도 기꺼이 해변으로 나와 함께했다. 청년정책협의체와 청년

커뮤니티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북콘서트 등 청년들의 관심과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1일 발족한 울진군 청년정책협의체는 지역청년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청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36명의 청년이 참여하고 있으며, 울진군은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커뮤니티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의 마음을 담은 다양한 사업을 고민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경주시, 유원지 건폐율 규제 완화...보문유원지 등 4곳

자연녹지 내 유원지 4곳, 건폐율 20%에서 30% 상향

경주보문관광단지를 포함한 지역 유원지 4곳이 본격 개발될 전망이다.

경주시는 자연녹지 내 유원지 4곳(보문유원지, 영지유원지, 불국사유원지, 오류유원지)의 건폐율을 20%에서 30%로 높였다고 26일 밝혔다.

경주시는 그간 유원지 내 경관 및 미관을 위해 건폐율을 제한했지만, 노후화가 심각한 지역 유원지 4곳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왔다.

이에 경주시는 도로·주차장·상수도 등 기반시설 용량과 경관적 영향 등을 분석해 유원지 건폐율 완화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들여다봤다.

이후 경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했고 지난 14일 열린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개정안이 모두 통과됐다.

개정된 ‘경주시 도시계획조례’는 다음달 4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경주시는 조례 개정으로 유원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회복은 물론 노후화가 심각한 지역 유원지 4곳의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앞으로도 경주시는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윤태용/기자



예천군,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보내기’ 추석맞이 종합대책 마련

9.28. ~ 10.3.까지 종합 행정편의 서비스 제공

예천군은 추석 연휴인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 동안 추석맞이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군은 추석을 맞아 군민들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분야별로 대책을 수립하고 행정지원실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생활, 교통, 불펜해소, 각종 사건사고 예방 등 주민들이 가족, 친지들과 불편함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종합적인 행정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대책으로는 총괄반, 종합상황반, 환경관리반, 급수관리반, 이재민지원반, 교통수송대책반, 도로관리반, 재해재난관리반, 가축질병대응반, 응급의료대책반, 비상방역반의 11개 전담반을 편성, 102명의 공무원이 일자별로 비상근무 체계에 들어간다.

이에, 27일 오후 4시 군청 5층 대강당

에서 전 비상근무자를 소집해 응급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상황근무 요령과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근무자 교육을 실시한다.

비상근무자들은 근무 중 재난사고 예방 관리 및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 교통 불펜 해소, 쓰레기 처리 및 환경오염 예방단속, 상수원 보호 및 원활한 급수, 식중독 등 응급환자 진료체계 확립으로 더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읍면은 연휴기간 중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해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는 등 자체 대비책을 마련한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추석 명절 종합대책 추진으로 군민과 귀성객 모두가 사건·사고 없이 편안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23, 10월 1일 전야제로 봄업 ‘추석 연휴 내내 관광 콘텐츠 쏟아진다’



올 추석 연휴 기간 다양하고 알찬 관광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 안동에서 펼쳐진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23을 비롯해 한국문화테마파크 산성마을의 추석 행사, 하회선유출몰놀이, 도산서원 야간개장 등 재미와 감동이 있는 안동만의 관광 콘텐츠가 쏟아진다.

세계보편문화인 탈과 탈춤을 기반으로 세계인을 하나로 만드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23’이 10월 1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9일까지 구 안동역 및 원도심과 탈춤공원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다. 축제의 전야제인 10월 1일에는 구기차역사 내 메인무대에서 박현빈, 홍진영 등 연예인 초청공연으로 축제의 봄을 이끈다. 또한, 개막일인 10월 2일에는 하회별신굿탈놀이 강신(降神)마당과 원도심 퍼레이드와 탈춤축제 개막식이 진행된다.

축제 이틀날인 10월 3일에는 아이돌 가수인 스테이시, 비아이, 우디 등이 출연하는 K-pop 공연과 함께 크라이닝, 붐비트, DJ 세포 등이 출연하는 마스크 EDM 파티도 진행된다. 이와 더불어 10월 6일부터 세계탈놀이경연대회와 창작탈공모전, 탈을 쓰고 끼를 뽐내는 탈탈랜트, 탈을 쓰고 무작위로 방송댄스를 즐기는 랜덤플레이댄스도 준비되어 있다.

10개국 11개 팀의 해외공연단과 작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국내공연단 17개 팀과 제주입춘군을 관람할 수 있다.

한국문화테마파크에서는 추석 연휴와

함께 개장 1주년을 기념해 10월 3일까지 무료입장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오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산성마을의 추석 행사가 열려 민속놀이체험(투호, 널뛰기, 윷놀이, 제기), 막걸리 빚기 체험, 특별공연 등을 진행한다.

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을 위해 딱지 만들기, 연날리기 키트가 제공되고 산성마을 주막에서는 12시부터 일일 100명 선착순으로 소고기 국밥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실내에서는 3D 의병체험, 선비숙녀변신방, 폭탄탈출방 등이 운영되고, 야외에서는 국악공연, 버블공연, 마술공연 등이 펼쳐진다.

추석 당일(9.29.) 하회마을, 병산서원, 봉정사(행사 무료 개방), 도산서원 입장료가 무료이다.

하회마을에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하회별신굿탈놀이 공연을 연휴 내내 오후 2시에 관람할 수 있다. 연휴 내내 하회마을에서 전통문화 체험행사도 진행한다. 접민다레

는 빈연정사, 옛돌과 다듬이 체험은 노인회관, 짚공예 병풍 체험은 옹행당에서 열린다. 특히, 30일에는 19시부터 드라마 악기로 큰 주목을 받은 하회선유출몰 놀이가 만송정 일원에서 개최된다. 하회세계탈박물관은 추석 당일 휴관일을 제외하고 관람 가능하다.

도산서원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 색다른 서원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야간개장(18시~22시)을 진행한다. 또한, 각종 미디어아트와 포토존 조형물, 테마 연극 퍼포먼스, 경전 성극 시연 등 다양한 이벤트도 열린다.

이외에도 뮤지컬 이육사 공연이 안동체육관에서 28일 19시, 29일~30일 16시, 19시에 열린다.

아울러 연휴 기간 중 안동시 관내 공원노상, 옥동, 터미널, 시장공영, 웅부공원 유료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귀성객과 시민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영덕군, 추석 명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조기 마감

영덕군이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시장 상권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진행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군민의 활발한 참여 속에 조기 마감됐다.

영덕군은 기존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4,000장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계획했으나, 첫날 1,919장, 이틀날 1,630장이 소진되며 3일 만에 행사가

종료됐다.

같은 기간 영덕임시시장 내 수산물 판매액은 최소 1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영덕군은 행사 전후 영덕임시시장을 중심으로 유통 중인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시행해 소비자 등이 안심하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김동희 영덕부군수는 “예상보다 많은

분이 시장을 방문해 주셔서 모처럼 시장에서 대목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며, “행사 중이 아니더라도 싸고 질 좋은 물건을 많이 영덕시장을 애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봉화군, 제22회 봉화군 어린이집 연합운동회 및 아이사랑가족대축제 ‘성료’

봉화군은 22일 봉화은어송이테마공원에서 제27회 봉화송이한약우축제와 연계해 ‘제22회 봉화군 어린이집 연합운동회’ 및 ‘아이사랑가족대축제’를 개최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봉화군이 주최하고 봉화군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주관한 1부 연합운동회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북일보가 주관한 2부 아이사랑가족대축제로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내 10개 어린이집의 원아, 학부모, 교직원 등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어린이집 원아,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어린이 달리기, 줄다리기, 어울림 한마당 등 다채로운 운동회 프로그램과 마술공연, 4D카 체험, 복조리 만들기, 에어바운스 등을 비롯한 다양한 만들기 및 체험 부스, 놀이시설이 준비되어 즐거운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행사가 끝나 아이에게 집에 가져와 설득하는 것에 한참 걸렸다.”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하루를 선물할 것 같아 기쁘고 이런 기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지난번과 다르게 다양한 체험 부스와 봉화에서 찾지 못했던 놀이시설이 있어 아이들에게 더욱 즐거운 시간이 된 것 같다.”면서 “다음에도 아이들을 위한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 더욱 즐거운 운동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박한국 봉화군수는 “이번 행사 프로그램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발전시키고, 나아가 우리 미래 주역인 아이들이 살기 좋은 봉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도, 추석 연휴 방역 및 비상진료체계 구축

도 및 시군 24개반 방역·비상근무체계 유지

경상북도는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비상 진료 및 감염병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응급의료기관과 병·의원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 지킴이 약국 지정 운영으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중 응급환자에 대한 비상진료를 위해 도 및 시군에 24개반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당직의료기관과 휴일 지킴이 약국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도내 응급의료기관 37개소는 24시간 상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일반 병·의원 778개소, 휴일지킴이 약국 690개소는 연휴 기간 운영 계획에 따라 운영에 불편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진단검사와 확진자 입원에 차질이 없도록 선별진료소 41개소(보건소 23, 의료기관 18), 중·중증 지정병원 7개소 20병상과 일반의료체계 병원 40개소 862병상을 확보·운영 중이며, 소아·분만·투석 환자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을 위한 특수병상 100병상을 가동 중이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현황 및 약국에 대한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19안전신고센터 △경상북도 및 시군 보건소 홈페이지 △응급의료포털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App)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특히,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도 및 시군 보건소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도내 재난거점병원*인 권역응급의



료센터 3개소에 재난의료지원팀을 편성해 다수 인명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재난응급의료 진료체계를 가동한다.

아울러 '닥터헬기'는 상시 출동 대비태세를 갖추고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치료를 돕는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연휴

동안 비상진료에 협조하는 병·의원 및 휴일지킴이 약국에 감사하다"라며, "이번 연휴 기간이 긴 만큼 진료 공백으로 인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해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구미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기획전'1917. 11. 14.' 개최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6돌 기념, 유품·사진·영상 공개



구미시는 26일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6돌을 맞이해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기획전'1917. 11. 14.'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출생 배경과 생일 기념 일화 등을 살펴보고 생일에 관한 의문을 풀어준다. 전시품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 이후 받은 마지막 생일 선물 등을 포함한 유품 27건이 공개되며, 사진과 영상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전시명에서 뜻하는 날짜 1917년 11월 14일은 박정희 대통령의 양력 생일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재임 10여 년 동안 매년 양력 9월 30일에 맞춰 공식적으로 생일을 기념했으며, 양력 11월 14일로 변경한 것은 1976년 이후의 일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전시를 박정희 대통령 106돌 탄신을 기념해 마련했으니 박정희 대통령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생일 일화에 담긴 당대 사실들을 통해 다양한 시각으로 역사 교육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동현/기자

으랏차차 멋진 후반전, 미래세대와 함께...「제27회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이 특·광역시 중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만큼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과 집 근처 15분 내 이용 가능한 시설 기반 시설 구축에 최선 다할 것" 밝혀

부산시는 지난 26일, 시청 1층 대강당에서 안병윤 행정부시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을 비롯해 주관기관인 문우택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장을 비롯한 부산시, 노인단체 및 기관 관계자, 표창 수상자, 시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유공자 시상 ▲100세 어르신 기념품 전달 ▲조손가정 생활지원금 전달 ▲1·3세대 통합공연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염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매년 10월 2일은 노인의 날로, 노인을 공경하는 미풍양속을 간직하고 노인 문제에 대한 나라와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7년 제정됐으며, 시는 그동안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정해 그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식을 진행해 왔다. 올해로 27회째를 맞는 노인의 날 기

념식은 자기 계발과 자원봉사를 통해 미래 세대와 함께 적극 소통하고 공동체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 '으랏차차 멋진 후반전, 미래 세대와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

행사 시작에 앞서, 노인요양시설 등을 방문해 활발하게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경헌예술포사단'이 과거와 현재를 잇는 우리의 소리 유산인 민요 공연을 선보였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적극 발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따뜻한 부산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는 단체 및 기관 등 유공자 대상으로 시상식이 열렸다.

▲4개 단체와 기관 ▲일선에서 노인 돌봄 등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생활지원사 등 7명 ▲지역 내 어르신들의 권익 신장과 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애써오신 모범 노인 5명 ▲장사업무 유공자를

포함한 총 17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및 부산시장 표창을 수여했으며 이어 100세 어르신 한 분에게 청려장과 유기 수저 등 기념품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기원했다.

또한, 작년에 이해 올해도 선배 시민으로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담아 대한노인회 부산시연합회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후원금으로 조손가정 20가정 (1가정당 50만원)에 총 1천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전달했다.

전달식에 이어 어르신과 대학생들이 행사를 위해 함께 준비한 1·3세대 통합댄스공연이 진행돼, 이 공연을 통해 세대가 서로 소통하고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메시지가 전달됐다.

기념식 마지막 순서로 액티브 시니어*로서 부산시 발전에 앞장설 것을 약속하며, 부산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2030세계박람회가 부산에 꼭 유치되기를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해, 행사 참석자 모두 다 함께 '으랏차차 멋진 후반전, 미래 세대와 함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플래카드를 들고 응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이 특·광역시 중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만큼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과 집 근처 15분 내 이용

가능한 시설 기반 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태/기자

김정구 부곡4동, '복지 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추진

조계원 위원장, "명절을 앞두고 주위 어려운 이웃이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 더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부산시 금정구 부곡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내 온천장역 일대에서 '어려운 이웃을 찾아주세요! 본인의 어려움을 알려주세요!'라는 강령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추진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통장 등 10여 명이 리플릿, 홍보 물품을 전달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위기가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줄 것을 호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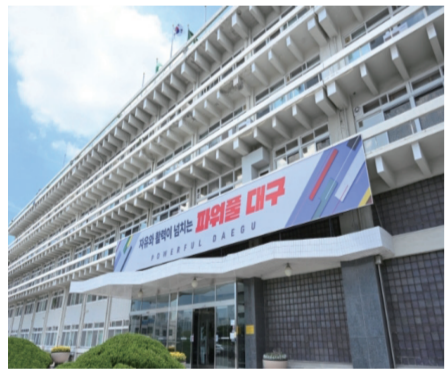
캠페인에 참여한 조계원 위원장은 "명절을 앞두고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 더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희태/기자



대구시민 58.7% '대구시정 잘하고 있다'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마라톤대회 격상',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등 높은 긍정 평가



대구시민의 절반이 넘는 58.7%가 '대구시정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으며, 이는 3개월 전 민선8기 1주년 조사보다 긍정비율이 1.9%p 오른 수치이다.

이번 조사는 대구광역시가 추석을 맞아 시정 주요 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하반기 정책 추진의 바로미터로 삼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선8기 대구광역시 중점추진사업 긍정 평가에서 시민들은 팔공산 국

립공원 승격, 대구국제마라톤대회 보스턴 대회급 격상 등 문화·관광정책에 대해 가장 높은 71.8%의 긍정평가를 내렸다. 근소한 차이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발의 71.4%,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 도입 등 복지정책 69% 순으로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제2국가산단 유치,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예비타당성 통과 등 10대 주요 정책들이 63% 이상 긍정평가를 받았다.

코로나19 이후 문화와 교통복지 등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더 큰 호응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회 역대 최다원이 발의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수도권에 버금가는 새로운 남부 거대 경제권 형성에 대한 시민 기대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며, 영호남을 잇는 달빛고속철도는 오는 2030년 완공 예정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항 시기와 맞물려 더 큰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미래발전을 위한 우선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미래 신산업 육성 및 대구

산단의 첨단화 24%, '맑은 물 하이웨이' 건설 20.3%, 신공항 교통망 확충과 도시철도 노선 확대를 통한 미래형 광역도시 건설 17.7%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구 쇠락이 섬유산업 몰락 이후 산업구조 대개편 실패에 원인이 있고, 향후 신공항 활성화를 위한 필수 조건인 교통 인프라 확충에 있음을 시민들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오랜 시민들의 숙원인 맑은 물 공급에 대한 관심 역시 한층 고조된 것으로 풀이된다.

셋째, 다양한 시정 분야 중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분야는 경제·산업 22.6%, 도시주택·건설 18.8%, 건강·보건 17.4% 등의 순으로 일자리, 물가 등 민생과 직결되는 경제·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관심을 꾸준히 보이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주거 문제와 관련된 주택·건설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끝으로, 대구 미래에 대한 전망을 물으면 결과, 51.6%가 향후 대구가 더 발

전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대구광역시가 (주)리얼미터에 의뢰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 할당 후 무작위 추출한 만 18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온라인을 통해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대구광역시는 이번 조사를 포함해 올해 3차례의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조사는 대구 편입 후 처음으로 군위 시민들도 대상에 포함돼 한층 다양해진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장은 "신공항을 비롯해 5대 신산업 육성 등 대구의 주요 시책들은 대구가 더욱 도약하기 위한 것이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앞으로도 주요 정책들이 동력을 잃지 않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문경 대표 전통주 팝업스토어, 대구에서 성황리에 개최

문경 전통주 3개 업체 참여, 1,500여명 시음 체험

문경시는 지난 9월 20일부터 9월 24일까지 5일간 대구 봉산문화거리에서 문경을 대표하는 전통주 브루어리들이 참가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여 1,500여명의 방문객을 맞이했다.

이번 행사는 봉산문화거리의 한 고즈넉한 한옥에서 '대구 안의 문경, 문경머머'이라는 슬로건으로 문경 대표 양조장인 두술도가, 문경주조, 오미나라의 막걸리, 증류주 등 전통주를 홍보·시음하고, 문경의 관광과 축제를 알리는 장으로 꾸며졌다.

특히 스나의 술 성향 찾기! 주(酒)BTI 프로그램은 MZ세대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으며, △ 유튜브 '주락이월드' 조승원 기자의 특별 강연회 △ '고운달'행운권 추천행사 △ 박사월 블루스 재즈 콘서트 등

은 시원한 가을 저녁 반월당을 찾은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한편, 본 행사와 연계하여 문경 주요 양조장 4개 업체(가나다브루어리, 두술도가, 문경주조, 오미나라)와 문경새재 등 주요 관광지를 투어하는 당일치기 문경여행 상품이 하반기까지 운영될 예정으로, 문의는 밝은사람들(053-660-6614)로 하면 된다.

김동현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행사로 전통주에 대한 높은 관심과 타지에서 많은 분들이 문경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전통과 특산물 등 다양한 지역 특색을 반영한 관광 상품 개발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영주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한국폴리텍대학 맞춤형 인력양성 업무협약 체결

영주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과 한국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는 26일 한국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에서 '맞춤형 인력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지역민 대상 실무 교육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추진단 교육사업 수요조사 △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교육생 선발 △인적자원개발 지원 등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마련하게 된다.

10월부터는 한국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에 'IOT 스마트팜 제어 실무 기초'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20명을 모

집할 계획으로 교육은 농업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인적자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도농복합형 영주시의 특성을 살려 지역경쟁력 향상과 농촌 활성화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농

업·농촌지역의 자산과 민간조직을 활용한 특화산업 육성, 공동체 활성화 등 농촌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영주시는 2020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돼 2024년까지 약 70억 원(국비 49억, 시비 21억)의 예산을 사업에 투입한다.

정금자/기자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수원시 영통구,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실시

수원시 영통구는 개학을 맞아 9월 한 달 간 관내 초중고교 60여개 학교 주변에 대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했다.

이번 일제정비는 주간과 야간에 걸쳐 정비구역반과 관계 공무원 12명이 참여해 학교주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현장점검과 정비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과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선정적인 문구가 포함돼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전단지 등·하곳길 보행안전을 저해하는 입간판, 현수막을 대상으로 정비에 중점을 두었다.

지난 21일에는 망포역 인근에서 불법 전단지와 현수막 등을 정비하고 자진철거 계도를 촉구하는 자정캠페인을 병행 실시했다. 영통구는 향후 청소년 유해광고물을 비롯한 불법광고물 상습 계척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서주석 건축과장은 "개학을 맞아 학교 주변의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삼/기자



녹색 휴식처 만드는 부천시... "안전·건강하게 누리는 여가 제공"

도심 속 여유·공원·녹지 환경 조성 추진...
'손쉽게 찾는 생활권 녹색 휴식처'

부천시가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생활권 녹색 휴식처 조성에 나선다. 집 또는 일터와 가까운 곳에서 일상의 피로를 풀고,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천시는 이를 위해 ▲2023 부천 가을꽃 전시회 개최 ▲치유형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산림·공원·녹지) 사업 ▲상동호수공원 사고 예방 지능형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한다.

추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맨발로 조성되는 장소는 ▲원미산 2곳 ▲범박산 ▲성주산 ▲작동산 ▲은대미공원 ▲삼정동 녹지대 ▲소새울공원 ▲미리내공원 ▲부천중앙공원 2곳 ▲상동호수공원 등 총 12곳이다. 부천시는 올해 9월 원미산 내 자연형 흙길을 시작으로 오는 2025년 6월까지 맨발로를 만들 예정이다.

◆ 2023 가을꽃 전시회 개최... "시민과 함께 시 승격 50주년 기념"

부천시는 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해 시민과 함께하는 '2023 가을꽃 전시회'를 개최한다. 특히 축하와 감사의 의미를 담아 시민이 도심 속에서 심과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도시경관을 가꾸는 데에 공을 들인다.

또한 부천시는 현재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원미산·범박산·성주산·작동산 내 동선과 부천둘레길을 연계해 산행·산책 환경을 다양하게 꾸민다. 휴게 의자·세족장·신발 보관함·안내판과 같은 편의시설을 보완하고,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백리향 등 향기 식물을 식재해 시민 치유의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반 전시회는 오는 10월 한 달간 ▲부천중앙공원 ▲심곡 시민의강 ▲부천역 남부광장 ▲소새울역 ▲소사역 북부광장 ▲원종역 등 6곳에서 열린다. 국화·백일홍 등 10종 30만본의 가을꽃을 전시하고, 시 승격 50주년 기념 꽃 조형물·포토존·부대 행사를 마련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 상동호수공원, 사고 예방 지능형 시스템 구축... "안전망 촘촘"

부천시는 안전한 녹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동호수공원에 사고 예방 지능형 시스템을 구축한다.

부천시는 전시회 쓰일 꽃을 직접 운영하는 양묘장에서 재배했으며, 이를 통해 사업비 예산을 절감했다. 전시를 마친 후에는 시민들에게 꽃을 분양해 자원 재활용도 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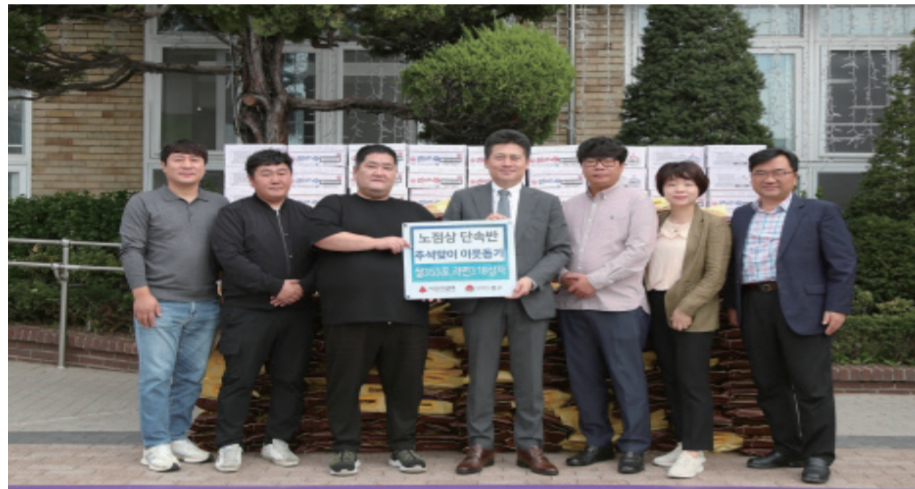
◆ 안전망 촘촘... "시민 건강 증진"

부천시는 시민이 일상에서 손쉽게 건강 증진을 이룰 수 있도록 산림·공원·녹지·공유지 등에 치유형 맨발 걷기 산책로 '맨발로(路)'를 조성한다. 맨발로에는 흙길·황톳길·모래길 등 다양한 형태의 맨발 걷기 환경이 갖춰진다. 맨발 걷기는 혈압을 낮

윤용민/기자

노점상 단속반 일동, 인천 중구에 추석맞이 이웃돕기 후원

인천 중구 노점상 단속반, 통 큰 기부로 훈훈함 더해



인천시 중구는 지난 25일 노점상 단속반으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추석맞이 이웃돕기 후원 물품(쌀4kg 353포, 라면 20개입 318상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중구청 건설과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반원들은 매년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인천시 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올해는 중구의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노점상 단속반 인문철 반장은 "중구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위로가 되길 희망하며 반원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기부하게

됐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정현 중구청장은 "현장 민원을 처리하는 격무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나눔에 동참해준 단속반 모두에게 감사하다"라며, "경제위기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 온정의 손길이 계속 이어져 모두가 살기 좋은 중구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기탁된 물품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접수 후 기부자의 뜻에 따라 중구 저소득층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종남/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 불법 광고물 야간 합동단속 나서

민원 다발지역 중심 합동단속반 편성해 세 차례 진행

용인특례시 기흥구가 하반기 늘어나고 있는 분양 현수막과 헬스장 족자, 벽보, 광고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담당 공무원과 용역반원 9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지난 14일과 22일 두 차례 신고가 많은 동백, 보정, 영덕동을 중심으로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야간 합동단속을 벌였다. 구는 추석 전 한 번 더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기흥구는 단속지역이 넓어 사회복지단체 미래재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반이 15개 동을 3개 정비노선으로 나눠 단속하도록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야간 합동단속을 통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악의적·고의적인 불법 광고물 게시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야간 합동단속을 벌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불법 광고물 합동단속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삼/기자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

WORLD DRONE FESTA 2023 NAMWON, KOREA

2023. 10. 6(금) ~ 10. 9(월) 남원종합스포츠타운

흥이 넘치고 놀거리 가득한 제31회 흥부제

2023. 10. 7(토) ~ 10. 9(월) · 사랑의광장 일원

2023 남원 문화재야행

광한청허부, 달나라궁전으로 초대

10.7 토-10.9 월 18:00-23:00

광한루원 · 요천월궁광장일대

강원도, 호우·태풍 카는 피해 복구비 496억 원 확정

호우·태풍 피해액은 217억 원, 복구비는 496억 원(위로금 포함)

강원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장마철 호우 피해 복구에 93억 원, 제6호 태풍 카는 피해 복구에 403억 원을 지원하는 복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장마철 호우로 58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27동 침수 피해와 함께 농경지 7ha가 유실,매몰됐고 농작물 102ha 등의 사유시설 피해를 입었으며, 하천,소하천 8건, 도로 13건, 산사태,임도 45건 등 78개소의 공공 시설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6호 태풍 카는으로는 159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전.반파 4동, 침수 371동, 소상공인 956업체의 침수 피해와 함께 농경지 47ha가 유실,매몰됐고 농작물 169ha 등의 사유시설 피해를 입었으며, 하천,소하천 68건, 도로 32건, 소규모시설 64건 등 272개소의 공공 시설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복구비는 호우,태풍 사유시설 피해 복구에 69억 원, 공공 시설 피해 복구에 427억 원으로 국비 234억 원, 도비 78억 원, 시군비 184억 원이다.

지역별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군에 대해서는 270억 원, 춘천시를 포함한 16개 시.군은 226억 원이며 특



히, 고성군은 지방비 부담분 128억 원 중 28억 원을 국비로 추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공공시설 중 고성군 거진시가 침수는 향후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개선복구사업으로 확정되어 피해액(2억) 대비 38배인 76억 원을 복구액으로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다.

특히, 사유시설 피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사항으로 호우 피해 지원 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적용하여 기존 지급되던 재난지원금 이 외에 추가,생계 안정을 위한 위로금 31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국고 미지원 시군

(춘천 등 6개 시군)에 대해서도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으로 특별교부세 47억 원을 추가 요청했다.

강원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 복구계획 확정과 동시에 신속한 예산 편성 및 연말까지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조기에 행정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내년도 우기 전까지 주요 시설물을 단계적으로 복구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 김진태 도지사는 "피해지역 도민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업체를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복구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염치읍, 아산 첫 고속도로 대표 관문 위치한 곳"

25일, 아산시농업기술센터서 '2023 하반기 염치읍 열린간담회' 개최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난 25일 '2023 하반기 염치읍 열린간담회'에서 "염치읍은 아산 최초 고속도로인 아산~천안 구간의 대표 관문, '아산IC'가 위치한 곳이다. 아산을 대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 지식농업관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올해 하반기 읍면동 순방 열린간담회의 마지막 순서로,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과 전남수 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일반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고속도로 개통으로 염치는 시내 구간을 통과하지 않아도 경부선 또는 논산 방면으로 바로 갈 수 있다. 2027년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연결되면 인주JCT를 통해 수도권까지 연결되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게 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반면 어려운 측면도 있다. 고속도로가 염치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면서 농토가 잠식됐다. 그래서 염치를 친환경농업의 중심으로 키우려 한다. 농산물을 선별 처리하고 친환경적으로 가공해 공급하는 먹거리재단이 염치에 입주해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고속도로 개통의 긍정적인 요소를 지역 발전에 활용해야 한다"면서 "고속도로로 염치 지역 토지가치가 올라가게 된다. 개발자들이 이 혜택을 따져볼 만한 곳이 됐다"고 강조했다.

"곡교천은 아트리버파크 조성사업으로 브랜드화 사업이 진행 중이고, 성웅이순신 축제 때 노 젓기 대회도 열 계획이다. 아산대교~삼교천 구간은 카누를 띄우기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이 모든 것이 염치에 활력을 가져올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주민들은 △곡교천정 상습 침수 구역 해수방안 △염치 한우타운 재개발 추진 △쌍죽리 저수조 건설 △산양2리



현대차 방면 도로 4차선 확장 △염치 저수지 수질관리 △2026년 배수펌프장 완공 때까지 침수예방책 마련 △석정리 일원 도로변 수목 정비 △곡교천 도로보고 아치형 개량 △아산 IC에 '염치 한우타운' 광고판 설치 △경철 치안센터 설치 등을 건의했다.

박 시장은 한 주민이 염치읍 도시개발에 대한 의지를 묻자 "염치는 현재 중심지인 염치읍을 통한 시가지화는 어렵다. 하지만 곡교천 개발이 완료되고 고속도로 개통 이후 민간개발도 수요가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계속해서 그는 "그래서 곡교천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곡교천 북단 송곡리-석정리를 도시계획정비구역에 포함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도에 계획 승인을 요청하고 있다. 포화상황인 동 지역의 확장 출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산시는 2022년 하반기·2023년 상반기 염치읍 열린간담회에서 접수된 총 30건의 민원·건의 사항 중 7건에 대한 처리가 완료됐다고 보고했다. 또 2023년과 2026년까지 각각 7건이 처리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관련법이나 예산의 제약 등을 이유로 4건은 '처리 불가' 결정했으며, 나머지 25건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원호/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 "대백제전 폐막까지 철저히 대응"

연휴와 맞물린 축제 기간 많은 방문객 예상되는 만큼 안전 최우선 강조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3년만에 치러진 '2023 대백제전'과 관련 방문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음달 9일 폐막할 때까지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2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43차 실국원장회의에서 "윤석

열 대통령 등 국내외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3일 개막한 2023 대백제전에 주말 동안 47만여 명이 방문했다"며 "축제 기간이 연휴와 맞물린 만큼 더 많은 국민의 방문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중국 등 8개 나라 529명의 해외사절단 및 공연단도 대백제전에 참가한다"며 "행사장을 방문한 모두가 백제의 멋과 흥을 제대로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과 만족을 최우선에 두고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추석 연휴 종합대책과 다음달 5일 열리는 2023 탄소중립 국제콘퍼런스의 빈틈없는 추진과 준비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경제·안전·복지·의료·환경 등 분야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도민과 고향 방문객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종합대책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추석 전후 공직기강 확립에도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달 5일부터 이틀간 언더2연합 아태지역 포럼과 연계해 2023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민선 8기 탄소중립 정책 1년 성과의 국제적 확산과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도록 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정근/기자

태백시, 2023년 추석 연휴 종합대책 추진

이상호 태백시장, "시민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분야별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혀

태백시는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분야별 대책을 담은 '2023년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추석 연휴기간(9월 28일~10월 1일)동안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일부 상황반은 10월 3일까지 별도 연장운영한다.

우선, 시는 오는 추석 연휴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반, 쓰레기대책반, 물가안정대책반, 산림재해대책반, 교통생활민원 대책반, 비상진료 및 보건대책반 6개 분야별 대책반을 운영하여 시민의 생활안전을 책임진다.

또한, 연휴기간에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관내 응급의료기관인 태백병원

은 24시간 응급실 진료체계를 유지하며,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 운영한다. 다만,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은 개인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는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추석 명절 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여 명절 성수품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물가정보망)공개, 물가모니터를 활용해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한다.

이와 함께, 명절기간동안 배출된 쓰레기 관련 민원 신속 대응을 위해 명절 쓰레기 대책 상황반 및 기록처리반을 운영한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시민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분야별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상근/기자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UNESCO

Korea in Korea

경북 세계유산

지방시대를 견인하겠습니다!

핵심과제

- 외연확장**
가야고분군(고령 지산동 고분, '23.9. 등재유력), 태실, 한지, 활문화 등 신규발굴
- 맞춤형 관광자원화**
신라왕경 역사자료길, 하회권 컨스로드, 서원·산사 명품순례길 조성

- 디지털 대전환 선도**
천년 신라왕경 디지털(메타버스) 복원, 천년 유교경전각 건립
- 문화유산 생태계 혁신**
디지털 콘텐츠 산업클러스터 조성, 답러닝 기반 전통기록물 해독

경북교육청, 특수교육 우리가 책임진다!

특수교육담당 교육전문직원 한자리에 모여 머리 맞대다



경북교육청은 26일 화백관에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업무 담당 교육전문직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2023년 9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기존·신규 장학사를 대상으로 하반기 경북 특수교육 사업 추진을 안내하고, 상호 정보 공유와 소통의 시간을

가치 위해 마련했다.

특히 경북교육청의 특수교육 정책에 대한 세심한 안내를 통해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업무담당자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특수교육 지원 역량을 높이며, 교육지원청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우수 사례 공유의 기회를 가졌다.

윤근수/기자

울산교육청 교육감배 스포츠스태킹 서부초·방어진초 우승

각각 남초부와 여초부에서 1위, 전국 대회 출전 자격 얻어

‘2023년 울산광역시교육감배 학교 스포츠클럽 스포츠스태킹대회’에서 서부초등학교(교장 임미숙) 블루팀이 남초부 우승, 방어진초등학교(교장 강명희)가 여초부 우승을 차지했다.

스포츠스태킹은 12개의 스피드스택스 컵을 다양한 방법으로 쌓고 내리면서 집중력과 순발력을 기르는 기술과 스피드의 스포츠 경기다.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주최하고, 대한스�포츠스태킹협회에서 주관한 이번 대회 우승팀은 전국 대회 출전 자격을 얻는다.

대회는 지난 6월 10일 열린 1차 리그와 지난 23일 대현고등학교에서 열린 2차 리그 결과를 합산해 4개 팀을 정한

후, 준결승전과 결승전을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해 순위를 가렸다.

초등부 남·여 준우승은 방어진초와 서부초가 자리를 바꿔 차지했다. 남초부는 방어진초, 여초부는 서부초 레드팀이 2위에 올랐다. 3위는 서부초 남자 레드팀과 여자 블루팀이 차지해 서부초는 출전한 4팀 모두 입상했다.

이번 이벤트 경기인 학교 대표 왕중왕전에서 방어진초 6학년 오운우 학생이 남초부 대표전 1위를 수상했다.

강명희 방어진초 교장은 “학생들이 학업 부담에서 벗어나 즐거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으로 함께 어울리며 협력하고 즐길 줄 아는 학생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초부 우승팀인 서부초 학생은 “스포츠스태킹을 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일인데 우승까지 하게 돼 너무 기쁘다”며 “지도해주신 선생님과 함께 경기한 친구들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황규진/기자



경북교육청, ‘유아나이스 개통에 맞춰 모든 유치원 준비 완료’

도내 모든 유치원 기초자료 입력 및 사용자 교육 완료

경북교육청은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를 위해 도내 모든 유치원의 학적 구성과 사용자 교육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26일 개통되는 유아나이스는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협력해 유치원의 교육행정, 학사업무, 유아학비, 학부모 서비스와 민원을 전산화한 시스템이다. 초·중·고등학교는 20년 전부터 나이스 시스템으로 교무학사 업무 전반을 관리해왔으나, 유치원은 그동안 수기로 작성·관리하며 어려움이 있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교육부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된 이후 타 시도교육청보다 선제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하고 도내 이용자가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기간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교육지원청별 전달 강사, 컨설팅단, 분청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컨설팅 등을 통해 6개월간 도내 610개 유



치원 전체에 대한 학적 구성과 인사기록 등재를 마무리했다.

또한 유아나이스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실시, 체크리스트와 간단 안내서 배부 등 다양한 사용자 지원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많은 분들의 관

심과 협조로 공식 개통 전 모든 유치원이 유아나이스 활용을 위한 준비를 마칠 수 있었다”며 “이번 유아나이스 개통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더욱 강화되고 학부모와의 원활한 정보 공유와 소통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교육청, 사상구에 자율형 공립고와 기숙형 중학교 설립 추진

부산교육청·부산시·사상구, 우수 교육 인프라 구축 협약 체결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부산지역 인재의 유출을 막고, 동서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상구에 ‘자율형 공립고 2.0’와 ‘기숙형 중학교’ 설립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학교설립은 하윤수 교육감의 공약인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부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현재 부산교육은 미래형 인재를 육성할 다양한 유형의 학교 부족, 지역인재의 유출 가속화,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 등 해묵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수한 교육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 사상구가 손을 맞잡

고 자율형 공립고와 기숙형 중학교 설립에 나선다.

세 기관은 26일 오전 11시 사상구청 구민홀에서 하윤수 교육감, 박형준 부산시장, 조병길 사상구청장, 장제원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형 공립고와 기숙형 중학교의 성공적인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사상구는 학교설립을 위한 부지 제공에, 부산시는 도시계획변경 등 학교설립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부산교육청은 자율형 공립고와 기숙형 중학교 설립에 힘을 합칠 계획이다. 장제원 의원은 학교설립을 위한 정치권의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부산교육청은 자율형 공립고와 기숙형 중학교 신설 절차를 밟을 것이다. 이들 학교는 학교장 전형 등을 통해 학생 모집 예정이다.

또한 우수 교원 초빙, 자율적 학사 운영, 기숙사 운영 등을 통해 부산을 대표하는 명문 학교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학교설립은 다양한 교육 선택 기회 제공, 우수 인재의 지역 정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등을 통해 부산교육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시교육청은 기대한다.

특히, 사상구는 과거 1960~80년대 부산의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했지만, 교육적·경제적으로 소외됐다. 우수한 학교설립을 통해 그동안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교육도시로 거듭날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한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세 기관의 협약은 부산교육과 부산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해 나갈 마중물이 될 것이다”며 “이들 학교설립이 교육 수요 맞춤형 ‘교육자유특구’의 초석이 되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는 물론 부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을 품어 나가는 데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태/기자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



도민이 행복한 희망 경북! 경상북도의회가 만들어 갑니다.



2023 제50회 신라문화제

SILLA CULTURAL FESTIVAL



예술제 10.06.FRI — 08.SUN
축 제 10.13.FRI — 15.SUN

경주 봉황대 및 월정교

충남도, 역대 최대 9500억 투입 최첨단 디스플레이산업 이끈다

강원도, 경력단절여성 정보기술 전문강사로 경력이음

도, 정부 공모 선제적 대응 무기발광디스플레이 예타 대상지 아산시 선정

(주)KT와 협력, 정보기술(IT) 전문강사 115명 수료, 14명 취업 성공



충남도는 정부 공모사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산업부 주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스마트모듈러센터' 구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 이은 쾌거로, 예타 통과 시 사업 대상지인 아산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에는 디스플레이산업 분야 역대 최대 규모인 9500억 원이 투입된다.

유재룡 도 산업경제실장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한 전략기술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상향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것이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며 "충남이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의 중심지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는 충남의 발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안보와도 직결된다"며 "디스플레이 산업 뿐만 아니라 도심항공교통(UAM), 반도체 패키징, 자율주행차 등 미래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충남의 산업과 경제발전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예타사업 현황 무기발광 디스플레이는 산소 및 수분에 취약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의 단점을 보완하고, 태양광 환경에서도 높은 신뢰성과 고휘도 및 장수명을 구현해 기존 유기발광다이오드의 한계를 뛰어넘는 나노 크기의 세계 최고 신기술이다. 산업부는 2025년부터 2032년까지 기술개발 7905억원, 기반시설 1595억원 등 9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중 국비 규모는 7431억원에 달한다.

도는 아산시, 한국광기술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충남테크노파크, 디스플레이산업협회와 협업을 통해 아산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내 6400㎡(1936평) 부지에 건축면적 4000㎡(클린룸 3000㎡, 기술지원동 1000㎡) 규모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스마트모듈러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달 중 과기부에 예타조사 대상사업 신청 절차를 밟고 있으며, 도는 예타 기술성 평가, 본예타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 예타 통과를 목표로 역량을 결집해 나간다.

◇스마트모듈러센터 운영 계획 및 기대효과 센터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개발 지원과 공정 전반에 걸쳐 기업들이 자유롭게 시험할 수 있는 실증시설로, 60종의 실증장비를 구축해 △화소제조 기술(25개) △패널제조 기술(27개) △모듈제조 기술 개발(25개) 3개 분야에서 77개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운영방향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연접한 아산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을 중심으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핵심기술·핵심제품 확보 및 자립공급망을 구축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주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핵심기술은 초소형·고효율 화소 기술, 고속 패널형성기술, 초대형 모듈러 디스플레이 제조기술 등 디스플레이 신시장 선점을 위한 3대 초격차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확보한 초격차기술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시장점유율 70% 이상을 달성해 신시장 창출을 선도하고,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공정 내 75% 이상 자립화를 추진해 세계 최대의 디스플레이 산업에 카로로서의 확고한 입지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4000명 넘는 지역 일자리와 3조 6000억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는 물론, 세부적으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원천기술 및 패널 생산 기술력 확보 △가격 경쟁력·시장지배력 강화 △소부장 국산화를 향상 및 글로벌 소부장 기업육성 △혁신적 기술 창업 및 신규 기업·기관 집적화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 실장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는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한 초격차 기술 및 경쟁력·생산성 확보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현재 건설중인 혁신공정센터와 결합된 디스플레이 분야 국내 최고·최대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강원특별자치도와 (재)강원특별자치도일자리재단은 (주)KT와 협력하여 강원여성 정보기술(IT)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23년 115명의 수료생 배출했고 수료생 중 14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등 가시적인 취업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22년부터 (주)KT 강북/강원광역본부와 뜻을 같이하여 도내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정보기술(IT) 전문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

강원여성 정보기술(IT) 전문강사 양성 과정은 최근 메타버스,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의 원동력인 트랜스인 정보기술(IT) 분야의 여성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주)KT는 'KT IT서포터즈'와 함께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교구를 지원하고, 강원특별자치도는 학습 공간 제공 및 교육생 모집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주)KT가 개발한 '스마트과정'과 '인공지능(AI)/메타버스 과정'으로 구성되어 실생활에 필요한 스마트폰 활용 강의법, 카드 뉴스 제작, 스마트 강사 교수 기법, 자율 주행 AI 코딩, AR/VR 체험 및 콘텐츠 제작법 등이 주요 강의 내용이다.

특히 올해는 2022년 수료자들의 심화과정 편성 수요를 반영하고, 수료생의 역량강화 및 사후관리를 위해 기존 '스마트과정'과 '인공지능(AI)/메타버스 과정' 외에 '통합·심화 과정'을 추가 편성하여 운영했다.

수료생 115명은 도내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 15개소에서 228회의 실습을 거친 후, 9월 현재 14명이 디지털 배움터 및 강원경제교육센터 등에 취업하여 디지털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누적 취업 인원은 총 21명이다.

또한 '24년부터는 지금까지 양성과정을 운영해오던 춘천, 원주, 강릉 지역 외

1개소를 추가하여 교육의 접근성 및 수혜자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료생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배움터, SW미래채움강사, 강원경제교육센터 등 취업처 맞춤형 역량 교육과정 추가 신설 및 취업처 발굴 협력망 구축을 통하여 일자리 연계가 더욱 공고히 될 수 있도록 힘쓰고,

기 수료자를 대상으로 협동조합 개설 및 교육서비스 창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 전문교육을 2회 추가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이경희 복지보건국장은 "초·중등 디지털 의무교육 확대 정부 방침에 발맞추어 실질적으로 일자리 수요가 예측되는 분야를 타깃으로 양질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도내 경력단절여성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강원도
GANGWON PROVINCE



강원도
GANGWON PROVINCE

강원도
GANGWON PROVINCE

충북도, 내륙권발전 지원사업으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견인

2024년 정부예산 20억원 반영, 백두대간권 휴양치유관광벨트 조성

충청북도는 내륙권발전 지원사업에 대한 '24년 정부예산 25억원을 반영했으며, 올해 안에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내륙권발전 지원사업은 해안내륙발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충북도 등 시·도지사가 10년 주기('21~'30)의 내륙권발전 종합계획안을 수립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시·군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북은 백두대간권의 산림자원 및 호수 등을 연계·활용하는 사업을 중점 추진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옥천 장계관광지 생태관광단지 조성사업 ▲괴산 산막이옛길 생태휴양단지 조성사업 ▲단양 에코순환루트 인프라 구축사업 ▲충주 심항산 발길 순환루트 치유힐링공간 조성사업으로 '24년 정부예산은 옥천 5억원, 괴산 5억원, 단양 10억원, 충주 5억원으로 전체 25억원을 반영했다.

이중 옥천, 괴산, 단양의 지원사업은 '23년 실시계획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하고 '24년부터 본격 공사를 시작하여 '25년 준공예정이며 충주는 '24년까지 사전절차를 마무리하고 '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옥천 장계관광지 생태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출렁다리, 전망데크, 쉼터를 조성하여 우수한 대청호 수변경관과 인포리 산림경관을 동시에 조망 및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0억원 규모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침체된 장계관광지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괴산 산막이옛길 생태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칠성면 사은리 일원에 체류형 숙박시설(트리하우스) 및 자연학습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0억원 규모이며, 사업 완료시 괴산군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단양 에코순환루트 인프라 구축사업은 단양의 관광지를 자전거·스마트모빌리티로 돌아볼 수 있도록 순환루트, 진



옥천 장계관광지 생태관광단지 조성사업



괴산 산막이옛길 생태휴양단지 조성사업



단양 에코순환루트 인프라 구축사업



충주 심항산 발길 순환루트 치유힐링공간 조성사업

입도로 및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0억원 규모이며, 도담삼봉~단양을 시가지-만천하 거점을 친환경 순환루트를 통해 즐길 수 있게 된다.

충주 심항산 발길 순환루트 치유힐링공간 조성사업은 종민동 심항산 일원에 숲과 호수를 조망할 수 있는 특화된 디자인을 적용한 아트폴리와 체험형 어드벤처 파크, 힐링전망카페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96억원 규모이며, 사업 완료 시 충주 탄금대-제천 청풍호반-단양 도담삼봉을 잇는 발길 순환루트 지역거점이 조성된다.

충북도 강성한 균형건설국장은 "내륙권발전 지원사업은 백두대간권의 아름다운 산림 및 호수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사업으로 충북 핵심사업인 레

이파크 르네상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및 시군과 지속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www.maskdance.com

Imagine your Korea

대한민국 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

2023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

2023.10.2. MON - 10.9. MON

구안동역, 원도심, 탈춤공원 일원

화려하게
꽃피는
탈과 탈춤

